

씬 1 운암정

Handwritten notes and a stamp in the top right corner.

주방.
도마 위에서 춤을 추는 복어.
예리한 칼날이 복어의 배를 가른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발라지는 내장과 살점.

안채.
심사위원들과 상에 둘러앉은 만식(운암정의 주인).

만 식 :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대령숙수의 적통을 이어받은
우리 운암정의 새 주인을 가리기 위함이올시다.

다시 주방.
붕주와 성찬의 현란한 칼놀림.
얇게 썰리는 복어 살, 사기 접시 위로 올려지고
그 위에 미량의 복어 알을 놓는 성찬.
붕주, 식은땀 흘리며 성찬 쪽 힐끗 본다.
그 위로 만식의 음성 계속.

만 식 : (소리) 우리 운암정은 대대로 가장 뛰어난 제자들의 대결을 통해 대를 이어
온 만큼, 운암정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최고의 요리사를 가려주리라 믿소.

안채.
양 옆으로 미달이 문 여는 덕기(운암정 직원 19세)
문 밖엔 성찬과 붕주가 무릎을 꿇고 있다.
자신만만한 성찬과는 달리, 얼핏 불안해 보이는 붕주.

만 식 : 대결 과제는 황복회 올시다. 황복은 일본에는 없는 재료로, 복종의 복이라 불리 우니
운암정의 주인을 가리는 과제로 부족함이 없을게요.
(성찬과 붕주에게) 준비 되었느냐.

성찬.붕주 : 네.

만 식 : 들이 거라.

만식의 지시에 따라 붕주의 복어 회를 상 위로 올리는 덕기.
회는 아름다운 국화 모양을 하고 있다. 탄성을 지르는 심사위원들.

- 심사 1 : 회를 통해 접시의 문양이 다 보이는군요.
(입맛 다시며)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 심사 2 : (시식하며) 음... 국화 향을 맡고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입안에서 춤을 추는군요.
쫄깃쫄깃한 황복의 육질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 심사 3 : (냄새 맡으며) 술의 향이라.. 황복에서는 술 향이 난다더니 놀랍습니다.
역시 오숙수 어른의 손자다운 최고의 맛입니다.

눈을 감고 꼬덕이는 만식.
봉주 입가에 잠시 기쁨이 머문다.
이어지는 성찬의 복어 회.

심사 1 : (날개 펼친 학 모양) 이번엔 학이군요. 젓가락을 대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심사 2 : (씹으며) 바다가 느껴집니다. 학이 바다 속을 날고 있어요~
죽음과도 맞바꿀만한 맛이라던 소동파의 말이 사실이었군요.
역시 최고의 맛입니다.

기뻐하는 덕기. 성찬 향해 엄지 손가락 내보인다.

심사 1 : 이래서야 누가 나온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둘 다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심사 3 : (맛보곤) 난..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눈을 뜨는 만식.
긴장하는 봉주. 성찬.

심사 3 : 끝 맛이 달라요. 마치 날카로운 작두 위에 서 있는 듯 한 느낌입니다만...

성 찬 : (자신감) 그게 제 복어의 다른 점입니다.

만 식 : 이 맛의 정체는 무엇이나?

성 찬 : 그건 바로..

갑자기... 퍽! 하며 몸을 비틀어대는 심사위원1.
차례로 심사위원2,3도 손이 꼬이고 혀가 마비되면서 입술이 시퍼래 진다.
당황하는 성찬.

만 식 : ..이.. 이놈! 황복의 독을 썼느냐?!

봉 주 : ..!!

성 찬 : (당황) 마.. 맛을 내려고 썼습니다. 하지만 절대 사람을 해칠만한 양은 아닙니다!

덕 기 : ...!

봉 주 : (역살 잡아 당겨) 청산가리보다 지독한 게 복어 독이야. 너 미쳤어?

성 찬 : 뭔가 잘못됐어.. 사람을 해칠 정돈 아닌데.. 잘못된거야.. 아니야..

봉 주 : 꺼져. 넌 끝이야.

성 찬 : ..!!..

신음과 절규의 아비규환.
허열게 질린 성찬. F.O.
메인 타이틀 **식객(食客)**

씬 2 방송국 기자회견장 (현재)

자막 - 5년 후

낡은 나무 상자 주변으로 빼곡히 둘러앉은 기자들.

건너편엔 국장과 데라우치.

국 장 : 조선조 궁중의 음식을 책임진 사람으로 우리는 수랏간 상궁만 알고 있습니다만, 나라의 큰 잔치가 열릴 때면 궁 밖에 살던 대령숙수가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남자 요리사였던 대령숙수는 철저한 세습으로 조리 기술을 전수해 왔는데, 진정한 후계자를 나타내는 징표로 대령숙수의 칼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의 맥이 끊어지면서 대령숙수를 상징하던 그 칼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 자1 : 그럼 그 칼이 이제껏 일본에 있었던 말입니까?
반출과 반입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국 장 : 현재로는 당시 차관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가져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후손인 데라우치씨께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데라우치, 일본인 특유의 목례.
터지는 카메라 플래쉬.

기 자2 : (일본말) 일본차관이 챙겨갈 정도로 귀중한 물건이었나요?

데라우치 : 아버지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여는 데라우치.
상자 안에는 대령숙수의 칼이 놓여져 있다.
칼엔 이가 나가있고, 손잡이도 없어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모습.
파파팟! 눈부신 카메라 플래쉬.

기자 3 : 칼 모양이 특이한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데라우치 : 순종임금이 곡기를 끊고 죽음에 이르자 수라를 올릴 곳이 없어진 대령숙수는 더 이상 요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여는 연회에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이 칼로 자신의 팔목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플래쉬 컷 - 칼로 자신의 팔목을 내리치는 대령숙수.

데라우치 : 아버지께서는 이가 빠진 이 칼날이 누를 수 없는 조선인들의 정신이라며 대령숙수를 존경 하셨습니다. 그 존경의 뜻으로 아버님은 칼을 일본으로 가져와 오랫동안 간직해 오신 겁니다.

웅성웅성 감탄하는 기자들.
영험함이 느껴지는 대령숙수의 칼..

기자 1 : 그럼 80년이나 지나서 칼을 반환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데라우치 : 부친께서 요리사가 된 저를 통해 대대로 물려지길 바랬지만 밤마다 들리는 칼의 피울음 소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보세요. 주인을 찾아 달라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일순 조용해지는 실내. 칼에 귀 기울이는 기자들.

데라우치 : 이 칼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사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2 : (국장에게) 칼의 주인은 어떻게 찾을 생각이십니까?

국 장 : 문화재청과 함께 요리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령속수의 의미 그대로 이 시대 최고의 요리사가 칼의 주인이 될 겁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대령속수가 아니겠습니까?

씬 3 대형 백화점 식품 매장

장바구니든 아줌마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고

그 줄을 따라 가보면 봉주의 얼굴이 찍힌 광고판.

‘진정한 장맛은 바로 운암정의 역사입니다’

‘철탐산업훈장 수훈 기념 세일’

CM송 ‘간장 된장 고추장은 오봉주 장맛!!’도 연신 흘러나온다.

운암정 띠 두른 한복의 도우미들이 봉주의 얼굴이 담긴 간장, 고추장, 된장 상품을 팔고 있고, 그 옆 테이블에선 자신이 집필한 요리책에 싸인 해 나눠주는 오봉주.

음 성 : (off) 축하해 오사장.

고개 드는 봉주.

아내와 쇼핑 나온 국장이다.

표정 굳는 봉주.

봉 주 : (싸인 하며) 운암정의 주인이라는 건 대령속수의 적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칼을 두고 시험을 해요?

국 장 : 오사장 실력이면 우승은 보나마난데 뭐가 걱정이야?

봉 주 : 내가 내 물건 찾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소비자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 장 : 설마 오사장 실력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겠어?

꼭 우승해서 외식사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봉 주 : (책 주며) 혹시 참가자들 중에..

국 장 : ...?

봉 주 : ..아닙니다.

책 받아들고 가는 국장.

일그러지는 봉주 얼굴.

씬 4 경찰서 유치장

유치장속 주부 도박단.

철창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 질러대는 진수.

진 수 : 여기 전화 좀 달란 말야! 나 V.J야! V.J 특공대 몰라?

경찰 1 : 아줌마 조용히 안 해?
진 수 : 나 아줌마 아네요! 주부 도박단 취재하러 간 거라고요!
방송국에 전화해보면 알 거 아네요!! 전화 좀 줘요, 네?
경찰 1 : 당신 핸드백에서 만원짜리 현금이 다발로 나왔어.
포카판, 화투판 끼는데 마다 싹쓸이 했다는데 V.J? 특공대?
진 수 : 취재 때문에 위장하고 친거라고요. 나 화투 못쳐요.

이때 뒤에서 들리는

도박녀 : (off) 개소리마 이년아! 니가 내 돈 딴 게 올만데 헛소리야?
경찰아자씨! 저년 꾀이래요.
경찰 1 : (버럭) 아줌마!
도박녀 : (off 주절주절) 시상에, 송씨가 올때나 좋은지 몰러. 쓰리고에 피박에 따따붙은
기본이구, 개평도 안줘 저 년은.
경찰 2 : (철창 문 열며) 김진수씨 나오세요. 신원확인 됐습니다.

환해지는 진수.

씬 5 도로

달리는 국장의 승용차.

씬 6 차 안

보조석 진수

진 수 : 어떻게 국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내가 벌써 그렇게 컷나?
국 장 : 너 원래 짹짹잖아. 아무도 안 가겠다더라.
진 수 : 하여튼 내가 이걸 팀이라고 믿고 사지에 몸을 던져요!
국 장 : 식사는?
진 수 : 어제부터 쫄쫄 굶었어요. 무섭게 끝발 붙는데 먹을 틈이 있어야죠.
국 장 : 굶은 보람이 있네. 내가 맛있는 거 먹여줄게.
진 수 : 진짜요?

씬 7 성찬의 집

지방의 시골집.
아무도 없는 조용한 마당.

진 수 : 뭐예요 여긴? 맛있는 거 먹여준다면서요?

국 장 : (이곳저곳 살피며) 이 친구가 나갔나?
진 수 : (궁시렁) 아니 이런데서 뭘 먹여준다는 거야?

불안하게 안채를 살피는데 누군가 자꾸 진수의 등을 툭툭 친다.

진 수 : (앞만 보고) 아 왜 그래요?

또 등을 친다.

진 수 : (핵 돌아보며) 왜 자꾸 장난을 쳐요..!

코 앞 멀뚱히 서서 눈을 깜박이는 소.

진 수 : 으아아아악!!! (놀라서 방 쪽으로 뛰는데)

벌컥 열리는 안방 문.
험한 눈의 성현(성찬의 할아버지/치매)이 괴기스럽게 서있다.
더 놀라 “으아아아악~~~”
뒗걸음치다 소똥 밟고 나자빠지는 진수. 가관이다.
- - -
낡은 군복 바지 주워 입은 진수.
수돗가에 쪼그려 앉아 치마 빨고 있다.
난데없이 박카스 내미는 성현.

진 수 : ..? 됐거든요.
성 현 : (먹으라며 한 번 더 내민다)
진 수 : (받으며) ..잘 먹겠습니다~

이때 집 앞으로 식재료 파는 트럭이 와서 선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성찬.

성 찬 : 어? 국장님이 웬일이세요?
국 장 : (악수) 제법 장사꾼 티가 나네? 잘 지냈어?
성 찬 : 국장님은요. 머리에 허열게 눈 내리셨네요.
국 장 : (웃는다) 매년 멀치 보내줘서 잘 먹고 있어. 마누라가 너무 좋아해.
진 수 : (off 투명스런) 밥 안 먹어요?

돌아보는 성찬.
빨랫줄에 치마 너는 진수 발견.

성 찬 : ...(누구지?!)

썸 8 성찬집 부엌

능숙하게 쌀을 씻는 성찬.
손등으로 물 맞추고 무쇠 솥에 밥 올린다.
파 송송 감자 송송, 도마 위에서 춤추는 성찬의 손.
항아리에서 짱아치 꺼내 썰고, 금방 버무린 곶절이 그릇에 담아낸다.
보글보글 냉이 된장찌개 신나게 끓고 있고
무쇠 솥 뚜껑 열면 허열게 솟아오르는 연기.
주걱으로 밥 푸고, 물 부어 누룽지 만든다.

썸 9 동 마당

평상에 둘러앉은 성찬과 성현. 국장과 진수.
밥 퍼먹는 진수는 거의 무아지경.

국 장 : (밥 먹으며) 요리대회 있는 거 알지?
성 찬 : 대령숙수 칼을 준다구요?
국 장 : 남 얘기 아니야.
성 찬 : 제 얘기 아니예요.
국 장 : 그렇게 승는다고 주머니 속에 송곳이 안 튀어 나오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임마. 눈치 볼 게 뭐 있어? 다 지난 일인데.
진 수 : (원 소리가 보는데) ..?
성 찬 : 요리 시작하고 한번도 즐거웠던 적 없어요.
최고가 되려고 누구랑 승부거는 거 이젠 지쳤구요.
저는요, 그냥 누가 내 음식 먹고 즐거워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진수 그릇에 송늬 부어주며) 저기요, 우리 아직 인사도 안했어요.

어머! 깨달는 진수.
갯잎 먹던 손 바지에 쓱쓱 닦고 손 내민다.

진 수 : 김진수예요. 그쪽은 성찬씨죠?
성 찬 : (악수하며) 많이 드세요.
진 수 : 이거요, 이거 다 성찬씨가 담궜어요?
성 찬 : 좀 싸드릴까요?
진 수 : (환해지는) 갯잎두요.

배웅하는 성찬.
진수, 바리바리 싹 음식들 양손에 챙겨들었다.

국 장 : 너 친정 왔냐?
진 수 : 아~ 친정 왔다 가는 기분이 이런거구나.

성 찬 : 참! 저번달에 계장 담근게 있는데 그걸 잊었네?
진 수 : (눈 커지며) 계장이요?
성 찬 : 참개로 담겼는데, 기다려요, 조금 싸줄게요.
국 장 : (잡는다) 됐어. 담에 오면 먹을게.
성 찬 : 언제 또 오실려구요.
국 장 : 또 올거야. 너 시험 참가시키려면 매일 와야돼.
진 수 : (궁시렁) 그래도 조금 싸가는게 좋지 않아요?

눈 부라리는 국장.
움츠러드는 진수.
이때, 안방문 벌컥 열리며 성현이 튀어 나온다.

성 현 : 저 년 잡아, 저 년! 저년이 내 박카스 훔쳐갔어!!
야 이 도둑년아, 내 박카스 내 놔!!!
성 찬 : (붙잡는) 할아버지. 누가 훔쳐갔다고 그래?
성 현 : 저 년이 훔쳐. 이년! 이 도둑년! 니가 훔쳐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국 장 : (은밀히 묻는다) 니가 먹었냐?
진 수 : (발끈) 먹긴 누가 먹어요~

달려들어 진수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성현.
그 속에서 박카스를 꺼낸다.
헉! 놀라는 국장. 성찬.

진 수 : (난감) 저기요, 아니거든요. 이거 할아버지가 준거거든요.
성 현 : (퉁! 지팡이로 머리통 때리며) 도둑년!

할아버지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성찬.

성 찬 : 멀리 못나가요, 들어가세요. (진수에게)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진 수 : 저기 성찬씨! 아니거든요!! 진짜루 아니거든요!!
국 장 : 왜 어르신 물건에 손을 대? 민망하게.
진 수 : (억울해서 몸부림)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거든요!!

씬 10 달리는 차 안

국도를 비추는 헤드라이트.

진 수 : 근데 저 사람 정체가 뭐예요?
국 장 : 운암정 알지? 거기 주인이 될 뻔했던 농이다, 저 농이.
진 수 : 네? 아니 근데 왜 저러고 있어요? 시험 참가 안한대요?
국 장 : 내 말이~
진 수 : 대단한 사람이구나~
국 장 : 오봉주 상대는 성찬이 밖에 없어. 시험에 맞수가 없으면 싱거워지는거 알지?

진 수 : (골똘한)
국 장 : ..뭔가 물건 좀 나오겠어?
진 수 : 예.
국 장 : 편성 잡아놨어. 뭐부터 할래?
진 수 : 무조건 잡아다가 대회장에 세워야죠!

씬 11 성찬집 앞

다음 날 아침.
윗마루에 할아버지 밥상 차려 놓고 외양간 쪽으로 가는 성찬.

성 찬 : (소 쓰다듬으며) 오빠 장사하구 올테니까 할아버지 잘 모시고 있어!
무슨 일 생기면 음머~음머~ 알지?

트럭으로 와 문을 여는 성찬.
놀라 기겁한다.
조수석에 여자가 자고 있는 게 아닌가!
...!

호 성 : 누구냐?

깜짝 놀라는 성찬.
포대기로 아기 업은 호성(마을이장/친구)이다.

성 찬 : 기척도 없이 와, 놀라게.
호 성 : 누구냐구 이 여자.
성 찬 : 몰라 임마. (흔들어 깨운다) 저기요. 진수씨..

잠에 취해 뿌리치는 진수.

성 찬 : 일어나요. 장사 나가야 돼요.
진 수 : (하품) 거기 참가 신청서 써놨어요. 이름 옆에 싸인만 해요.

보면 운전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요리대회 참가 신청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까지 꼼꼼히 기입되어 있다.
어이없는 성찬.

씬 12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성찬의 트럭.
확성기를 통해 요란한 장사 멘트가 흘러나온다.

성 찬 : (off) 자 성찬이가 왔어요 성찬이~ 최고의 식재료만 대드리는 성찬식품이 왔어요~ 언니 누님 사모님 여사님 오세요 오세요~ 구경들 하시고 물건 드려주세요~

보조석 여전히 자고 있는 진수.
뒷짐 진 아파트 경비원이 거만하게 걸어온다.

경 비 : 이봐! 여그 허가받고 하는 장산가?

성 찬 : (경례) 충성!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 부임 하셨죠?

다짜고짜 경비 품에 멀치박스 안기는 성찬.

성 찬 : 아시죠? 거제도 멀치.

정치는 15점 멀치는 만점! 드셔 보시구 입맛에 맞으시면 담에 한 박스 더 드릴게요.

경 비 : (못이기는척) 젊은이 열심히 사니께 받는기여.

성 찬 : (경례) 충성!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와~ 물밀듯이 몰려드는 아줌마들.

여자 1 : 이봐 동상. 나 매일 자기한테만 사는데 뭐 보너스 없어?

성 찬 : 감자 사세요. 고구마 보너스로 드립니다.

여자 2 : 그런 거 말고. 언제 우리 노래방 한번 가자 응?

성 찬 : 자! 단호박 다섯 통 사시면 마이크 빌려 드립니다.

여자 3 : 이그~ (성찬 궁둥이 때리며) 이거 비결이 뭐야?

성 찬 : 가지들이세요. 무쳐주시면 아저씨도 탕탕해집니다! (궁둥이 흔들면)

까르르 박장대소하는 아줌마들.

차에서 내리는 진수. 기가 막혀 성찬 쪽 보는데.

여자 1 : (진수 발견) 누구야? 애인?

성 찬 : 에이, 저 젊은 여자 싫어해요.

여자 2 : 인기 떨어질까 봐 괜히 둘러치는 거 아녀?

성 찬 : 글썸 아니라니까요. (하는데)

손님과 툭탁대는 진수.

진 수 : 안돼요! 여기 씨 있잖아요, 3개 천원. 경찰제 몰라요? (하는데)

성 찬 : (재빨리 끼어든다) 하지만! 단골은 다르죠! 두 개 더 가져가시고 방울토마토 한주먹 서비스. 맛있게 드세요~

(손님 가면 진수에게) 저기.. 지금 장사 방해하는 거거든요.

진 수 : 따라다닐 거면 밥값 하라면서요? (보조석으로 쏙 들어가버린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아줌마.

아줌마 : 아이고 우리 사위~ 여기서 판 벌였네~~

성 찬 : 장모님 오셨어요? 오늘 호박 좋아요. 감자도 좋구요.

아줌마 : 호박도 좋고 감자도 좋은데, 우리 딸 언제 만나줄 거야?

성 찬 : 따님 바쁘다면서요?

아줌마 : 에이~ 밤 도깨비 같은 년.

성 찬 : 언제든 나타나면 부르세요. 뽕하고 달려갑니다.

창밖으로 손만 내밀어 차체 탕탕치는 진수.

진 수 : 밥 먹고 합시다!

성 찬 : ..!

씬 13 정육식당 앞

식당 앞에 서는 성찬의 차.

진 수 : 아는 집이에요?

성 찬 : 첨인데요, 일단 맛있는 집은 간판 내공부더가 달라요.
봐요, 식당은 허술한데 비싼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잖아요.

진 수 : 아~

성 찬 : 자, 확인해볼까요?

씬 14 동 정육식당 내부

내부로 들어서는 성찬과 진수.

이때 우당탕! 내실 창호지 문이 부서지며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여주인.
건달1이 꽃등심 담긴 쟁반을 여주인에게 쏜는다.

건 달1 : 아줌씨. 우리 행님은 아롱사태 밖에 안드신다 안캅니까?

아롱사태를 가져오라고 아롱사태!!

여주인 : 어제 와서 드셨잖아요! 소 한 마리에 아롱사태 네 쪽 나와요.

매일 아롱사태만 시키면 우린 망한다구요!!

건 달1 : 어허~ 이거 말로 해갓곤 씨알이 안 맥히네.

덩치가 산 같은 건달들 우루루 쏟아져 나오고

겉에 질러 부르르 떠는 여주인.

성 찬 : (나직히) 나갑시다. (돌아서는데)

진 수 : (건달들 노려보고 있다)

성 찬 : 아 뭐해요? 나가자니까! (진수 끌면)

진 수 : 이 양아치새끼들! 왜 약한 여잘 괴롭혀? 니들이 그러고도 남자야!

일제히 돌아보는 건달들.

헉! 당황하는 성찬.

건 달1 : (정적 깨고) 니 지금 우리보구 씨부린 기가?
진 수 : 그럼 여기 니들 밖에 더 있니? (성찬 옆으로 비켜서며) 성찬씨 혼내줘요.
성 찬 : (가슴 철렁) ..뭐?

하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

건 달1 : 우째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다가오며) 그래, 니가 우릴 으떻게 혼내줄킨데?

점점 뒤로 밀려 막다른 벽에 몰리는 성찬.

건 달1 : (성찬 코앞에 서서) 으떻게 혼내줄끼냐고~
성 찬 : 조.. 좋아요. 아무래도 안에 계신분이 아롱사태를 좋아하시나본데..
내기 한번 합시다.

건 달1: (역살 잡아 올리며) 원 잡소리고 이 자식!
형 님 : (off) 잠깐!

돌아보면 문 앞 나와 있는 형님.
서늘한 눈매에 입에서 볼까지 푸욱 찢어진 칼자국.

씬 15 동 내실

팽팽한 긴장감.
3가지 생고기가 부위별로 놓여 있고 그 옆엔 날카로운 사시미 칼.
성찬은 자꾸 칼에 신경 쓰인다.

형 님 : 내가 이중에서 아롱사태를 골라내면 니 혀를 잘라도 되겠나?
성 찬 : ..(침 꿀꺽)
진 수 : 좋아요. 그렇게 해요!
성 찬 : (놀라 진수를 본다) 이런 씨...

안대로 눈을 가리는 형님.

건 달1 : 고마 시작하십시오.
진 수 : 성찬씨 파이팅!
성 찬 : (핵 째려본다)

물 컵 들어 입을 헹구는 형님.
건달1이 첫 번째 고기를 집어 형님 입에 넣어준다.
천천히 씹는..
긴장해서 지켜보는 부하들..

형 님 : (물로 입 헹구고) 다음!

두 번째 고기 먹는 형님.
지켜보는 여주인. 진수.

형님 : (입 행구고) 다음!

마지막 고기를 씹는 형님.
안대를 풀고 성찬을 바라본다.

성찬 : 어..어떤 게 아롱사태니까?

형님 : (서늘한) 건방진 놈.

성찬 : ..!

형님 : 내가 먹은 것 중에 아롱사태는 없어.

진수 : ..!!

형님 : 사람 잘못 봤어. (사시미 칼 집어 들며) 난 그 따위 얄은 수에 넘어가지 않아.

성찬 : 들렸습니다.

멈칫하는 형님.

성찬 : 첫 번째가 등심. 두 번째는 흥두깨살. 세 번째가 아롱사태입니다.

형님 : (쿵! 사시미를 테이블에 찍으며) 무슨 소리아! 내가 아롱사태만 30년을 먹었어.

성찬 : 당연하죠. 이렇게 먹으면 먼저 먹었던 맛이 입안에 남아서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물론 행군다고 뉘이지가 않습니다.

형님 : (분한 듯 입술 실룩) ..!!

건달1 : 건방진 새끼. 이게 무슨 수작이고!! (나서는데)

형님 : (손을 들어 제지) 좋아. 그럼 물을 안 마셨다면?

성찬 : 그래도 몰랐을 겁니다. 소고기는 부위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함유량이 달라서
맛이 다 틀리지만 그래도 일반인은 찾아내기 힘들죠.
그러니 앞으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드세요. 모든 음식은 똥 되면 다 평등해지니까.

자존심 상한 형님, 얼굴 달아올라 화끈화끈.
성찬은 조마조마 초긴장 상태.

형님 : 가자.

일어서는 형님.
나대는 건달1.

건달1 : (탁 달라붙어) 형님! 저 자식 살 발라가 물어 버릴까요?

형님 : ...

건달1 : 형님! 명령만 내려주이소.

다짜고짜 건달1을 짓밟는 형님. 녀석에게 화풀이 한다.
달려가 말리는 부하들. 우루루 식당 빠져 나간다.
이때 어깨에 커다란 고깃덩어리 들쳐메고 일어서는 덕기.

여주인 : 여보.

덕 기 : (성찬 발견) 형!

- - -

동 내실.

성찬과 마주 앉은 덕기.

덕 기 : (아이들에게) 니들 삼촌한테 인사했어?

이리와. 운암정에서 아빠한테 요리 가르쳐준 삼촌이야.

아이들 : 안녕하세요.

성 찬 : 그래, 반갑다.

덕 기 : (아이들 나가면) 형 운암정 나가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어?

거기서 나 챙겨주는 사람 형 밖에 더 있어? 봉주 그 자식, 형 입다고 패구,
형이랑 친하다고 패구, 더럽고 서러워서 나두 나왔어.

덕분에 저 사람 만나서 장인어른한테 가게 물려 받았잖어.

제법 유명해 여기. 나 돈두 많이 벌었어.

성 찬 : 제법인데.

덕 기 : (본다) ..형처럼 되고 싶었어.

성 찬 : 이젠 아니야.

덕 기 : 다시 시작해. 형 요리하는 뒷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알어?

성 찬 : 지금 하는 일 그만 두기엔..

덕 기 : ..!

성 찬 : 단골이 너무 많아. 나두 이쪽에선 제법 유명해.

덕 기 : (어이없어 웃는) 농담하지마.

성 찬 : 너희 가게, 상추랑 야채 나랑 거래 틀거지?

덕 기 : (받아치는) 꿈도 꾸지마.

하하하 웃는 둘.

씬 16 방송국 앞

방송국 건물 외벽에 붙은 플랜카드.

‘최고의 요리사를 찾습니다. 참가접수는 1층 로비’

지원자들의 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다.

멈춰서는 성찬의 트럭.

진 수 : 차에서 자면서 모기한테 얼마나 뜯겼는지 알아요?

쪼그려 자느라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구요.

성 찬 : 물파스 발라요. 사줘요?

진 수 : (지원서 내밀며) 싸인 하세요. 아깝잖아요, 그 좋은 실력을 왜 썩혀요?

지원서 받아드는 성찬.

반으로 찢고 포개서 또 찢고..

성 찬 : 미안해요.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진 수 : 애기 들었어요.
성 찬 : ...!
진 수 : 실수잖아요. 자신한테 좀 더 관대해지면 안돼요?

창 밖. 요리 보조 복장의 젊은 녀석이 참가증에 입 맞추며 신나서 뛰어간다.

진 수 : 진짜로 요리 시작하고 즐거웠던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성 찬 : ...(말없이 끄덕끄덕)

한숨 쉬는 진수. 어깨 축 늘어져 간다.

성 찬 : (흔젓말) 거 참, 괜히 미안하네..
진 수 : (운전석 창가로 불쑥 나타나) 미안하면 연락해요.
(명함주며) 기다릴게요. 꼭이요.

가는 진수.
명함 보는 성찬.
다시 불쑥 들어오는.

성 찬 : (짜증) 이봐요, 진수씨!
우중거 : 배달되유?
성 찬 : 예?
우중거 : 이 차에 실린 거 다 살테니까 배달 좀 해줘유.
성 찬 : ...?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명함 내미는 우중거.
선명하게 인쇄된 한자 雲岩亭(운암정)

성 찬 : ...!!

씬 17 달리는 성찬의 차 안

운암정가는 길.
보조석엔 거구의 우중거가 요리책 (라면! 그 특별한 비법)을 보고 있다.
차창 밖 건물 옥상에 세워진 대형 광고판.
엄지손가락 내민 봉주가 자신의 된장을 광고하고 있다.
애써 외면하는 성찬.
그 위로 시골 장터소리 선행된다.

썩 18 몽타쥬 (과거)

비오는 장터.

어린 성찬(15세)의 국밥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밥집을 한바퀴 휘감아 돌았다.
두루마기 입은 만식(운암정 주인), 우산 받쳐들고 성찬을 지켜본다.

- - -

운암정.

짐 가방 하나 짊어지고 만식의 뒤를 따르는 어린 성찬.
운암정 문을 통과하면 으리으리하고 고풍스런 기와집과 정원.
촌닥처럼 눈동자 굴리며 이곳, 저곳 둘러본다.
수십명의 어린 수련생들이 요리교육을 받고 있는 주방.
일제히 칼로 무채를 썰고 있다.
성찬의 등을 떠미는 만식.
성찬, 칼을 집어 들고 어정쩡 서 있으면 썰어보라는 만식이 손짓.
타....타...타..타타타타 칼을 놀리는 성찬.
점점 속도가 붙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수련생 틈에서 무 썰던 봉주, 힐끗 성찬 쪽 본다.
눈 마주치는 둘.
서로 경쟁하는 듯 타타타타타타..
다른 아이들 틈에서 단연 돋보이는 성찬과 봉주.

- - -

깊은 밤 빼곡한 수련생들 틈에서 잠 못 이루는 성찬.
봉주 역시 잠 못 이루고 뒤척뒤척.

- - -

자신이 만든 맥적(된장으로 양념한 고기구이)을 들고 일렬로 늘어선 수련생들.
차례로 맛보는 만식.
형편없는 음식들은 바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그 음식을 만든 수련생은 매서운 몽둥이에 엉덩이가 남아나질 않는다.
성찬의 음식을 맛보는 만식.
흡족하지만 내색 않고 통과, 다음은 봉주 차례.
순간 맛보던 만식의 표정이 싸늘해진다.
몽둥이 드는 만식. 봉주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팬다.
이를 악무는 봉주.
시기와 질투로 성찬을 노려본다.

- - -

그날 밤.
성찬이 만든 맥적을 훔쳐 먹는 봉주.
입에서 살살 녹는 맛..동시에 밀려오는 열등감과 서러움..
벽에 머리 처박으며 눈물 흘린다.

- - -

김장독 물을 땅을 파는 성찬과 수련생들.
허리 깊이까지 웅덩이를 파들어갔다.
으랏차! 봉주가 내민 손을 잡고 웅덩이 밖으로 나오는 수련생들.

성찬도 봉주 향해 손을 내밀지만 외면하고 가버리는 봉주.

- - -

내리는 눈.

갯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장독들.

성찬, 자신이 만든 간장을 맛보고 향아리 뚜껑 안쪽에 붓으로 글을 쓴다.

“1992년 겨울. 최고가 되자”

향아리 뚜껑을 덮는 성찬. 향아리 속 어둠.

씬 19 운암정 (현실)

천천히 뚜껑 열리면서 모습 드러나는 현재의 성찬.

뚜껑 안쪽엔 14년 전 쓰여진 “1992년 겨울. 최고가 되자” 문구가 그대로다.

- - -

낮익은 주방. 조리 기구들.

예전 그대로의 모습에 감회 젖는다.

움푹 파여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도마에 손 대보는 성찬.

까칠한 결을 따라 훑어 내리는 손.

인두로 이름 새겨진 칼 손잡이도 그대로다.

이때 봉주의 음성.

봉 주 : 대령숙수의 칼이 발견됐어.

성 찬 : (돌아본다) ..!

봉 주 : 그거 원래 운암정 물건이잖아. 우리 그거 찾아오자.

성 찬 : 날 부른 이유가 그거야?

봉 주 : ‘운암정의 후예가 대령숙수의 칼을 되찾다’ 멋지잖아, 의미도 있고.

사람들은 내가 참가해서 이겨주길 원해. ..도와 줄거지?

성 찬 : ...?

봉 주 : 운암정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내 밑에 들어와서 주방을 맡어. 니 평생 소원이 그거였잖나?

성 찬 : 내 소원은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거였어.

봉 주 : 운암정 주방을 맡는다는 건 최고의 요리사란 뜻이야. 그걸 내가 해주겠다니까?

성 찬 : 고마워. 사양할래.

봉 주 : (차가운) 너 혹시 딴 생각 먹고 있는거 아니야?

성 찬 : ...!

봉 주 : 방송국 앞에 얼쩡거리면서 요리대회 따위에 관심 갖지 말란 말이야.

성 찬 : ...!!

봉 주 : 그게 내가 아는 요리사의 양심이야.

성 찬 : 난 양심에 어긋난 짓 한 적 없어!

봉 주 : 그럼 니 요리 먹고 쓰러진 사람들은 뭔데?

넌 운암정의 주인이 되려고 음식에 독을 넣었어.

눈길 팽팽히 맞선다.

성 찬 : 난 요리대회에 나갈 생각 전혀 없어. 대령숙수 칼 따윈 관심도 없고..
봉 주 : 고맙군.
성 찬 : 하지만 생각이 바꿨어. 다시 시작할거야.
봉 주 : ...!!
성 찬 : 내가 누군지 보여 줄거야. 내가 최고라는 거, 너한테 확인시켜 줄거야.
봉 주 : (코 앞 다가와) 너 실수하는거야.
성 찬 : 복어 독 실수로 족해.

돌아서 가는 성찬.
씩씩대며 분을 못 참는 봉주.

씬 20 파출소

경찰1 머리카락 붙잡고 난리 부리는 성현.
경찰 여럿이 달라붙어도 막무가내.

성 현 : 나 좀 잡아 가, 나 좀~
경찰1 : 아..아..아..아우 아파요 할아버지. 자꾸 왜 이러세요?
성 현 : 내가 죽었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까~
경찰1 :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제발 이 손 좀 놓고 얘기해요!! (겨우 빠져 나간다)
성 현 : (경찰2 붙잡고 사정하며) 제발 나 좀 잡아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경찰1 : (빠진 머리털 보며) 아우 미치겠네, 무신 노인네가 근력이 이렇게 세~

이때 허겁지겁 파출소로 뛰어드는 성찬.

소 장 : (맘 좋아보이는) 성찬아! 할아버지 마실 나오셨다.
성 찬 : 매번 죄송해요 아저씨.
소 장 : 우리랑 짜장면 드셨다. 어여 모셔가.

성현 뜯어 말리는 성찬. 그러나 바닥에 퍼질러 눕는

성 현 : 잘못 했어~ 내가 잘못 했어~ (벌벌 떨며 성찬에게 싹싹빌며)
한번만 용서해 줘 한번만~
성 찬 : 할아버지 일어나.
성 현 :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구!!
성 찬 : 그래 할아버지가 죽었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만 가자 할아버지.

성현을 끌어안는 성찬.
안겨 파르르 떨고 있는 성현.

씬 21 논길

멀리 성현을 업은 성찬.

- 성 찬 : 할아버지, 나 운암정 쫓겨났을 때 기억나?
집에 돌아왔을 때 “배고프지?” 하면서 고깃국 끓여줬잖아.
그때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데.
억울해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요리 가르쳐준 할아버지가 미워서 울었어.
아~ 할아버지가 끓여준 고깃국 먹고 싶다~
- 성 현 : 준치 몸 먹고 싶어.
- 성 찬 : 준치 몸?
- 성 현 : 해줘. 먹고 싶어.
- 성 찬 : 알았어. 대가리랑 꼬리는 내가 먹고 할아버진 준치 몸만 줄게.

어느새 잠 든 성현.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며 논길 걷는 성찬.
“콩밭 때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설움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심느냐~”

씬 22 호성의 집

발톱 깎는 호성.

육중한 몸매의 호성처, 빨래를 개고 있다.

- 호 성 : 당신도 뉴스 봤지? 내일부터 요리대회가 열리는데 글썄 성찬이가 거길 나간다니?
그 자식 참 대단해. 그래서 그랬나?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기갈라게 좋은 차가
왔다 가더라니까? 사실 우리 두촌리에 인물이 없잖아? 이거 이럴 때 내가 마을
이장으로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말야. (넌지시 눈치보며) 돈이 있어서 뒷돈을
대줄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거라곤 천상 몸뚱이 하나뿐인데
- 호성처 : (이미 간파) 목숨 내놓고 따라 가그라. 발일 논일이 태산인데 으딜 따라 갈라카노?
- 호 성 : (찢끔) 아니 누가 따라간대? 난 그냥 뭔가 도와줄 게 없나 해서..
- 호성처 : 개수작 말고 이거나 개 싸라 마!! (빨래 집어 던진다)
- 호 성 : (투덜대며 커다란 팬티를 하나 잡아 늘리며) 근데.. 이게 맞어?
- 호성처 : 작다. 와?
- 호 성 : 아니 점점 건강해지는 거 같아서.
- 호성처 : (는 부라리며) 싫나?
- 호 성 : (겁먹고) 아..아니, 당신 건강해지는데 내가 왜? 그냥..마음이 좋아져서 그러지..

씬 23 성찬집 / 인근 시골길

달밤.

성현을 등지고 누운 성찬.
뒤척 뒤척 잠 못 이루는데 성현의 손길이 머리에 와 닿는다.
돌아보는 성찬. 성현이 인자한 표정으로 성찬을 보고 있다.
손자의 뺨을 어루만지는 성현.
어린 아이처럼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성찬..

- - -

다락 깊숙이 숨겨둔 가방 하나.
낡고 먼지 낀 그 가방을 성찬이 열고 있다.
안에는 운암정 시절 입었던 앞치마와 각종 조리기구들..

- - -

잠든 성현에게 큰절 올리는 성찬.
이불 반듯이 펴서 덮어준다.

- - -

동 밖 외양간.
여물통에 소죽 부어주는 성찬.

성 찬 : 오빠 없다고 음매음매 울면 안 된다. (소가 음매~하자) 쏠! 할아버지 깨우면 안 돼. 오빠 멋지게 예선 통과하고 올게. 파이팅!

선한 눈망울로 배웅하는 소.
성찬, 트럭에 오른다.
이때 멀리서 죽어라 달려오는 호성.
그 뒤엔 호성처가 곡괭이 휘두르며 죽일 듯 쫓아온다.

호 성 : (뺨스차림으로 소리치는) 시동 걸어~ 성찬아 시동 걸어~

성찬, 뭘 일인가 싶어 보는데 짹새게 올라타는 호성.

호 성 : 다..달려. 어서 달려!!

성 찬 : 왜 그래? 아침부터. (하며 시동 건다)

점점 더 가까이 트럭 쪽으로 달려오는 호성처.

호 성 : (거의 울부짖는다) 제발 밟아~ 나 죽어~ 빨랑~

성찬, 일단 악셀 먼저 밟고 본다.
호성처, 트럭 뒤 공기 잡을 찰라! 부우웅~ 달려 나가는 트럭.
휴~ 살았다. 안도하는 호성.
그러나 돌아보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려오는 호성처.
곡괭이를 뺨어 트럭 짐칸에 걸친다.
헉! 놀라는 호성.
이 악운 호성처는 이대로 서울까지 따라올 기세.

호 성 : (절규에 가까운) 밟아. 더 세게!!

성 찬 :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안되겠는지 발을 들어 성찬의 악셀을 밟아버리는 호성.
부웅~ 트럭이 속도내자 곡괭이 놓치며 나뉘는 호성처.
성난 황소처럼 꺽꺽 소리친다.

씬 24 시합장

장내를 가득 메운 관중들.
보조를 대동한 백여명의 참가자들이 3개조로 나뉘어 조리대 앞에 늘어서 있다.
떠오르는 자막 - 1차 예선 鳥(조)
자막 사라지면 대회장 전면에 내려와 펼쳐지는 대형 걸개 '鳥'
웅성이는 사람들..

호 성 : 장난 아니네~ 이 사람들 중에서 딱 한명만 뽑는단 말야? 자신 있냐 너?
성 찬 : (소개되는 심사위원들) 쉽진 않겠어. 저 사람들.. 반은 운암정 사람들이야.
호 성 : 뭐?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카메라 들고 행사장 스케치하던 진수, 성찬 옆 지나치며 궁둥이 치고 간다.
화들짝 놀라는 성찬. 이어지는 국장의 설명.

국 장 : 예선 경기는 각 조별로 다른 과제를 배정 받게 되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쟁과 오리. 닭 중에서 원하는 재료를 골라 실력을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둥~! 북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예선.
와~ 박수가 터지며 시합이 시작된다.
닭을 선택하는 봉주.
성찬은 꿩을 선택했다.

성 찬 : 조선시대엔 매를 길러서 꿩을 잡는 관청도 있었어.
그만큼 꿩은 귀한 요리 재료야. 기대해, 뭐가 만들어지나.

우중거를 보조로 둔 봉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연계찜을 만들고 있다.
한편 성찬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궁중 꿩 완자전골.
여기저기 관중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
훅! 가스불이 앞치마에 옮겨 붙어 허열게 소화기 세례 받는 요리사,
완성된 요리를 바닥에 쏟고 통곡하는 요리사,
온갖 헤프닝에 웃고 울던 조리시간이 북소리와 함께 마감된다.
드디어 시작되는 심사.
단연 이목이 집중된 봉주의 요리.
취재 카메라들이 화려한 연계찜을 열심히 찍고 있다.

심 사1 : 음~ 닭의 흰 살과 계란의 노른자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입안에서 어미 닭과 병아리들이 뛰어 노는 듯합니다.

심 사2 : 양기를 돋우는 닭의 성질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달걀의 성질을 잘 배합한 요리군요.
이 정도면 음식이 아니라 약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역시 운암정의 오숙수다워요. (봉주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간다)

봉 주 : (자신만만)

한편 성찬의 요리 앞 심사위원들.

심 사3 : (마땅치 않은) 자네 덕에 지옥 문턱까지 다녀왔었네.
스스로 시합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성 찬 :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심 사3 : 말은 청산유수구만.

뚜껑을 여는 성찬.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꿩 요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씬 25 시합장 주차장

차 쪽으로 걸어가는 성찬과 호성.

호 성 : 하하하. 아무리 짜고 치라 그래봐. 결국은 실력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왜냐? 입맛은 속일 수가 없거든. 너 아까 심사위원들 표정 봤지? 그냥 죽잖아.
(흥내) 음~ 입안에서 까투리가 타령을 부르면서 탭댄스를 추는 것 같아요~
(노래)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성 찬 : 웃기지 마 임마. 내가 아까 만든 건 까투리가 아니라 장끼였어.

호 성 : 장끼든 까투리든 1차 예선 가뿐히 통과했잖어. (순간) 어?

성찬의 트럭 바퀴 하나가 주저앉아 있다.

호 성 : 이..이거 왜 이래.

난감한 성찬.

건너편 나머지 바퀴 쪽으로 가보는 호성.

순간 혁! 덩치 큰 녀석이 송곳으로 바퀴를 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어이없어 곁에 쪼그려 앉는

호 성 : (지켜보다가 조용히) 시방 뭐하는 거냐?

허억! 기겁을 하고 놀라는 우중거.

둔한 몸짓으로 도망친다.

그러다 우뚝! 제자리에 멈춰서는 우중거, 놀라운 눈으로 호성쪽 돌아본다.

우중거 : 구병장님?

호 성 : ..! 이상병? ..너 우중거 맞지?
우중거 : (경례) 필승!
호 성 : (반갑게 악수. 성찬에게) 인사해. 취사병때 내 부사수.
성 찬 : ...?!

씬 26 성찬의 집

준치 굶는 성찬.

- - -

밥상에 둘러앉은 성찬.성현.호성.

성 찬 : (수저 쥐어주며) 할아버지 어서 먹어. 준치 먹고 싶다 그랬잖아?
성 현 : ...
성 찬 : 냄새 죽이지? 이 냄새가 집나간 며느리도 불러들인데.
성 현 : 준치 몸 쥐.
성 찬 : 알았어. 대가리랑 꼬리는 발라 줄테니까 몸만 먹어.
성 현 : 이거 아냐! 준치 몸 쥐!!

벌컥! 상을 뒤엎어 버리는 성현.

방으로 들어 가버린다.

황당한 성찬과 호성.

성 찬 : 나참, 기껏 구해왔더니..
호 성 : 어떡하냐? 증세가 점점 심해지신다.

갑자기 기겁을 하는 호성, 부엌으로 도망친다.

나타난 호성처.

호성처 : 성찬씨. 그 호로 자식 안 왔나?

곡괭이 들고 선 호성처.

한 손엔 첫째, 등에는 둘째를 업었다.

성 찬 : 그.. 글썸, 아까 같이 오긴 했는데.. 어디 갔나보네?
호성처 : 이놈 자숙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확 뽀사뽀끼다!!

부엌. 어둠 속에서 몸서리치는 호성.

호성처 : 근데, 와 밥상을 내팽기 쳤는데? 할배가 그랬나?
성 찬 : 준치 몸 드시고 싶대서 귀 드렸더니 이게 아니라네.
호성처 : 준치 몸이라겠나? 그럼 이거 아니고 토란대 아이기?
성 찬 : 무슨 소리야?
호성처 : 옛날 우리 할배가 토란을 좋아했는데 그걸 준치라카대.

그럼 준치몸은 토란대 아니겠나?

성 찬 : ...!! 그래?

호성처 : 으쨌든 그 싸가지 보몬 존말 할 때 기들어오라 캐라.

으이고 삭신이야~ 은제 인간 될 지 모르겠다 그 인간. (가려는데)

성 찬 : 순덕아.

호성처 : 와? (돌아보면)

성 찬 : 좋은 거 가르쳐 줬는데 그냥 보내기 미안하네.

(손가락으로 부엌 쪽 가리키며) 달리 줄 건 없고 그냥 내 성의라고 생각해.

호성처, 허리에서 오랏줄 풀러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간다.

잠시 후 우당탕! 때리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소리..

씬 27 동 안방

허겁지겁 맛있게 토란대 먹는 성현.

성 찬 : 진짜 토란대라고 하지 왜 사람을 골려먹어? ...맛있어?

성현, 대꾸 없이 토란대만 먹는다.

뿌듯한 성찬.

씬 28 시합장 복도

다음날. 눈 시퍼렇게 멎든 호성.

호 성 : 넌 임마 그러는거 아냐. 그런 일에 친구를 팔아먹어?

성 찬 : 그래도 마누라 품이 좋지 뭘 그래?

호 성 : 매 앞에선 최흥만도 읊어 임마.

하긴, 니가 매 맞는 남편의 고통을 알 턱이 있냐.

성 찬 : (웃는다) 오늘은 어떻게 빠져나왔냐?

호 성 : 밖에서 문 잠궂어서 창문 뜯고 나왔다.

성 찬 : 뻘뻘용이 따로 없구만.

호 성 : (동병상련) 박귀용? 그 친구도 맞고 산데?

복도 코너 도는 성찬과 호성.

심사위원 몇 명이 봉주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찬이 나타나자 슬금슬금 흩어지는 심사위원들.

성 찬 : ...!

씬 29 시합장

50명으로 압축된 참가자들.
떠오르는 자막 - 2차 예선 魚(어)
'魚' 라고 씌어진 커다란 걸개가 내려와 펼쳐진다.
웅성이는 사람들.

국 장 : 다음은 각 조별 재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각조의 과제가 쓰여진 걸개들이 하나씩 내려와 펼쳐진다.
'1조 - 도미' '2조 - 민어' '3조 - 명태' '4조 - 송어'
5조에 속해진 성찬.
초조하게 과제를 기다린다.
심사위원들과 시선 교환하는 봉주.
마침내 마지막 걸개가 내려와 펼쳐지는데
'5조 - 황복'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국장.
진수도 놀라 카메라를 내리고 성찬 쪽 본다.
...!!..
그대로 얼어붙은 성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틀림없는 황복이다.
...!!!

씬 30 동 시합장 화장실

세면대 앞 거칠게 세수 해대는 성찬.
찬물 뒤집어 쓴 채 고개 들어 거울을 본다.
옆에 다가와 손 씻는 봉주.

봉 주 :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내 밀에 들어와.

성 찬 : ...

봉 주 : 재료가 황복이야. 널 이렇게 만든 황복이라구.

다짜고짜 봉주를 끌어안은 성찬.
느닷없는 상황에 당황한 봉주.

성 찬 : (귀에 대고) 다시 한 번 기회 줘서 고마워. 니가 준 선물인데 고맙게 받아야지..

봉 주 : ...!!...(병찐)

씬 31 시합장

두둥!

북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2차 예선.
참가자들 일제히 재료를 손질하고 봉주 역시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미를 손질한다.
한편 성찬, 도마 위에 올려진 황복을 바라본다.
파득파득 살아 움직이는 황복.

호 성 : (걱정이 태산) 성찬아. 북 지리나 북 매운탕도 좋잖아. 내가 손질할까?
성 찬 : ...

결심한 듯 칼을 집어 드는 성찬.
복어 배를 가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내고 내장을 발라낸다.
한편 도미의 머리와 꼬리만 남기고 양쪽 살을 뜨는 봉주.
살을 결대로 잘라 도미전을 부친다.
전이 익는 동안 화려한 고명을 만들어내는 봉주의 손길.
그 외 참가자들도 민어조림부터 송어만두까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낸다.
마침내 그릇에 도미를 담고 원 모양 그대로 도미전을 뼈 위에 올리는 봉주.
그 주위로 화려한 색깔의 온갖 고명을 올린다.
한편 성찬. 다듬은 황복을 앞에 두고 깊은 한숨.

성 찬 : 호성아!
호 성 : ..영?
성 찬 :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지?
호 성 : 그..그럼.
성 찬 : 나 최고 맞지?
호 성 : 그럼, 니가 최고지.
성 찬 : ..그래.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

복어회를 뜨기 시작하는 성찬.
정면 승부다!
아뿔싸! 자신의 이마를 때리며 난감한 표정 짓는 호성.
국장과 진수도 걱정스런 눈빛.
봉주, 우중거한테 귓속말 전해 듣고 성찬 쪽 바라본다.

봉 주 : (조롱) 쳇, 니가 제대로 미쳤구나.

두둥!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
심사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식을 시작한다.
봉주의 도미요리 앞에 서는 심사위원들.
너나 할 것 없이 그 화려한 장식에 눈이 휘둥그래 지는데..

심 사1 : 하~ 이거 손을 댈 수가 없겠는데요. 과연 예술작품입니다.
일품요리의 극치입니다. 극치.

심 사2 : 그래도 심사는 해야겠죠? (젓가락으로 한 점 떠서 먹는다)
음~ 말 그대로 승기약탕입니다. 정말 춤과 노래보다 나은 맛이에요.
내 입속에선 이미 궁중연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심 사 3: 하하하~ 이 순간만은 내가 임금이라도 된 기분입니다. 하하하~

당연한 결과에 시큰둥한 봉주.
심사위원들은 민어 부레찜부터 명태 껍질 씹까지 다양한 요리심사.
“입안에서 꼬들꼬들 앙탈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세가인을 품은 맛이군요”
“그릇 위에선 요조숙년데 입 안에선 평양기생입니다” 등등
온갖 화려한 미사어구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드디어 성찬의 조리대 앞에 온 심사위원들.
용 모양으로 장식한 황복회다.

심사 1 : (표정 일그러져) 이거야 원..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사 3 : 자네 지금 제 정신인가!
심사 2 : 누가 아니랍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난 이 음식 입에 못 맵니다.

시식을 거부하는 심사위원들.

성 찬 : 부탁드립니다.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맛이나 봐주십시오.
심사3 :미안하네.
성 찬 : ..!!..

실격 처리되는 성찬.
관중들 웅성이고 호성도 다 끝났다 앞치마 내팽개 친다.
그 모습 멀찌감치 바라보는 봉주.
“이놈!” 하는 만식의 음성이 선행된다.

씬 32 운암정 만식의 처소 (과거)

뺨 맞는 봉주.

만 식 : 못난 놈. 그렇게 운암정을 갖고 싶다면 그놈을 이기면 될 거 아니냐!
봉 주 : 할아버지 손자는 저예요. 운암정의 손자는 나라구요!!
(눈물 글썽) 원래 내 껌데 그 자릴 놓고 왜 시합을 해요!

봉주의 양볼을 잡는 만식.
여전히 흐르는 눈물.

만 식 : 이겨라. 평생 나처럼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거든.. 그놈을 이기란 말이야..
봉 주 : ..!!

- - -

대결 당일 주방.
안채에서 들리는 만식의 음성.

만 식 : (off)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대령숙수의 적통을 이어받은
우리 운암정의 새 주인을 가리기 위함이올시다.

자신의 복어 회에 소량의 알(독)을 얹는 성찬.
바라보는 봉주의 눈빛이 번뜩인다.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복어 알을 더 얹는 손.
보면.. 성찬의 복어 회에 알을 첨가하는 봉주의 은밀한 손길이다.

씬 33 시합장 (현실)

웅성대는 관중들.
국장의 성난 음성.

국 장 : 이건 대회규정에 어긋납니다!

국장에게 쏘리는 시선들

국 장 : 규정상 시식도 안하고 실격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심 사 1 : 이보세요. 저 자는 복어회에 독을 넣는 자예요.

복어알을 과도하게 쓴 자격미달의 요리사라고요.

심사 2 : 저걸 먹고 중독이라도 되면 당신이 책임 질 거요?!

국 장 : 예전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도 독을 썼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봉 주 : (노동자 굴리며 상황 주시)

국 장 : 요리사에게 묻겠습니다. 이 요리에 복어 알을 썼습니까?

호 성 : (나직이) 아 뭐해? 빨리 대답해!!

국 장 : 썼어요, 안 썼어요?

호 성 : (다급한) 성찬아! 어서!!

성 찬 : ...썼습니다.

국 장 : ...!!

봉 주 : ...!

성 찬 : 복어알을 썼습니다.

어이없는 국장.
관중들의 야유.
봉주 얼굴이 환해진다.

심사 3 : 참가번호 93번 실격! (국장에게) 이젠 인정하시겠죠?

이때 불쑥 나서는 진수의 음성.

“저기요”

관중들 웅성이는 소리에 아무도 반응 없자 심사위원 마이크 뺏어들고 소리치는

진 수 : **저기요!!**

삐~익~!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에 귀 틀어막는 사람들.

진 수 : 복어알을 썼다고 다 실력은 아니죠!

일제히 진수에게 쏘리는 눈길들.

진 수 : 복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은양의 알을 별미로 알고 먹지 않나요?

심사 1 : 그건 정도의 문제지, 저자처럼 중독을 일으킬 만큼은 아니야.

진 수 : 그러니까 확인해봐야죠. 안먹고 알 수 있어요?

심사 3 : 어허~ 그걸 누가 먹느냐가 문제지.

진 수 : 제가 먹고 이상 없으면 시식들 하실 거죠?

책 돌아보는 봉주.

진 수 : (궁시렁) 이게 뭘 대수라고.

널름 손가락으로 회 한 점 집어 먹는 진수.

우~ 놀라는 관중들.

성찬, 국장과 눈 마주치자 어깨 한번 으쓱.

잔뜩 긴장한 우중거와 호성은 진수의 반응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킁!

목을 움켜잡고 괴로워하는 진수.

우~ 놀라는 관중들.. 놀란 심사위원들도 일제히 뒤로 물러서는데

장난스런 표정으로 몇 점 더 집어먹는 진수.

심사위원들(봉주와 친분 아닌), 서로 눈치 보다가 조심스레 한 점씩 입에 넣는다.

음~ 맛을 느끼는 심사위원들.

휴우~ 이제야 성찬도 안도의 한숨 내쉰다.

울그락 불그락 봉주 얼굴.

씬 34 시합장 복도

시합장을 나서는 성찬과 덕기.

길 가로막고 선 진수.

진 수 : 무슨 사람이 그래요?

성 찬 : 뭐가요?

진 수 : 한번 당했으면 댕지 복어알을 왜 자꾸 쓰냐구요?

성 찬 : 난 적당량을 알아요. 그걸로 최고의 맛을 낼 줄 안다구요.

그걸 알면서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요리사가 아니에요.

진 수 : 사람들이 겁먹잖아요.

성 찬 : 겁 없이 먹어준 사람도 있잖아요.

쿵! 웃는 진수.

성찬도 따라 웃는다.

그 모습 멀리서 바라보는 봉주. 굳은 표정..

씬 35 호성의 집

안방 창문 고치는 호성.
그 뒤 팔짱 끼고 감시하는 호성처.

호 성 : 글썸 그걸 당신이 봐야 됐다니까. 처음엔 안 먹겠다고 버티던 심사위원들이
나중엔 그냥 감동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이야~
나 정말 성찬이 존경하기로 했어. 그 자식 정말 대~단해!

호성처 : 내도 니 존경한다. 니도 대단하잖아.

호 성 : (뜻밖의) 정말? ..왜?

호성처 : 당연하재. 그 몸으로 요 구멍을 우째 파고 도망갔노?

이때 마당으로 들어서는 우중거.

우중거 : 구병장님!

호성처 : ...?

- - -

마당 평상에 앉은 호성과 우중거.
호성처는 옆에서 콩을 고르고 있다.

호 성 : 라면?

우중거 : (끄덕) 지가 원래 군대에서 디지게 맛았잖아유. 그날도 먼지 나도록 맛고 똥간 뒤서 우
는데 구병장님이 반합에다 라면을 끓여다 주셨시유. 진 그때 묵은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구유. 지가 아무리 그 맛을 내볼라캐두 당채 되지가 았더라구유. 부탁이구만유.
그 비법 좀 알려줘유. 그때 먹은 라면 맛을 다시 찾게 해줘유.

당황스런 호성.

호 성 : (짐짓 심각한) 글썸다... 그걸 함부로 알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중거 : (일어나 무릎 꿇고) 부탁할께유. 내는 참말로 심각해유.

호 성 : 글썸 이런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중거 : (애원) 구병장님!

호성처 : 쫓쫓쫓 지랄 염병들 해쌌네. 어이 덩치 큰 양반! 헛다리 고만 짚고 퍼뜩 가보소.
이 인간 오늘 갈아야 할 발이 태산인기라! (호성보며) 뭐하노? 퍼뜩 안 인나고!

호 성 : (반짝해서) 우상병, 시간 좀 있나?

우중거 : ..?

씬 36 호성네 발

쟁기를 몸에다 걸고 밭을 가는 우중거.

호 성 : 거참 미안허네. 기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말썽이고,

남의 소 데려다 쓰는 거 도무지 영치가 만나서 말이지..
우중거 : (땀이 비오듯) 됐시유. 비법만 가르쳐주심 돼유.
호 성 : (난처한) 근데 그 포장지에 나온 대로는 다 해봤나?
우중거 : 별짓 다 해봤시유. 운암정 들어오기 전에는 라면가게도 했는걸유?
지금껏 맨들어 본 라면만 100가지가 넘어유.
호 성 : (찜땀) 그..그래..

호미질 하던 호성처.

호성처 : 저 인간 저래가 뒷감당 우에 할라카노? (호미질) 내는 모르겠다 발만 갈아도!

- - -

논두렁 위에 마주 앉은 호성과 우중거.
버너 위에는 물이 끓고 있다.
물 온도 체크하고 기록하는 우중거, 기대에 찬 표정으로 호성의 솜씨를 기다린다.
난감한 호성. 소처럼 일까지 시켰는데 위기를 어찌 모면하나 안절부절..
에라 모르겠다 라면을 집어 물에 넣는다.
그 사소한 동작까지도 예사롭지 않게 관찰하는 우중거.
부담스런 호성.. 도저히 안되겠는지 사실을 고백하려 입을 떼다.

호 성 : 저..사실은 이상병.

이때 꾸르릉!
마른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쏟아진다.
기회를 놓친 호성.

호 성 : 오늘은 악천우 관계로 전수를 중단하겠다.
우중거 : (억울한) 구병장님!
호 성 : 넌 라면 면발이 왜 꼬불꼬불한지 아냐?
우중거 : 그..글쎄요.
호 성 : 돌아가서 생각해봐, 왜 면발이 꼬불거리는지.
(천둥소리 꾸릉!) 맛의 진실은 가까운 데 있어.

난해한 말을 남기고 일어서는 호성, 도망치듯 사라진다.
던져진 화두에 고민하는 우중거.

씬 37 운암정 주방

운암정을 스케치하는 진수.
카메라에 마당 쓰는 서노인이 잡힌다.

진 수 : (다가서며) 저 할아버지. 운암정엔 언제부터 계셨나요?

뒷걸음질 치는 서노인.

진 수 : (따라가며) 잠깐만요~ 뭐 좀 여쭙 볼께요 할아버지.

가버리는 서노인.

가우똥 바라보는 진수.

- - -

주방을 가득 메운 수련생들.

봉주에게 요리교육을 받고 있다.

카메라에 담는 진수.

봉 주 : (수련생들 사이를 오가며) 맑은 생태탕을 끓이려면 무엇보다 질 좋은 생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음식의 맛은 80%가 재료의 선택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지.

(수련생1의 생태를 들어 올리며) 이건 아가미도 멀쩡하고 비늘도 깨끗하게 살아있다.

이런 게 바로 주낙으로 건져 올린 낚시태로서 맑은 생태탕을 끓이는 재료가 된다.

수고했다.

수련 1 : (신나서 꾸벅 인사)

봉 주 : (수련생2의 생태를 들어보며) 이건 시골 장터에서나 파는 싸구려 그물태다.

그물코에 끼여 몸부림치다 죽어서 아가미가 찢어지고 비늘이 벗겨져 있다.

(노려보며) 이런 쓰레기로는 절대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아!

바닥에 던져 버린다. 흙바닥에 구르는 생태.

진 수 : 저기요.

봉 주 : (핵 돌아본다)

진 수 : 그래도 아깝지 않나요?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요리법을 달리하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봉 주 : 이보쇼 김기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흠칫) 카메라 켜나? (확인하곤)

여긴 운암정이야 운암정.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만 만들어내는 운암정이란 말야!

진 수 : 근데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비싼걸 어떻게 사먹어요?

봉 주 : 그럼 당신은 싸거 먹어. 그러면 되잖아.

진 수 : 뭐라구요?

봉 주 : (바닥의 생태를 줍는다) 애들아, 저 아가씨 갈 때 신문지에 싸드려라.

수련생에게 생태 던져주는 봉주. 간다.

진 수 : (흥분한) 재료만 좋다고 최고의 음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뒤도 안돌아보고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위로 치켜드는 봉주.

진 수 :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며 돌아서면 멀리서 뻗히 보고 선 서노인.

눈 마주치자 시선 피하며 사라진다.

진 수 : ...?

씬 38 논두렁 / 냇가

앞 서 걸어가는 소.
성찬과 진수가 그 뒤를 따른다.

성 찬 : 아~ 서영감님?
대대로 머슴을 사셨는데 운암정에서 태어나서 운암정 밖으론 나가 본적도 없대요.
한마디로 운암정의 살아있는 역사죠. 근데 그건 왜요?
진 수 : 취재하러 들락거릴수록 운암정은 참 모를 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독 하나 기와 한 장에도 깊은 사연이 있는거 같거든요.
성 찬 : 수 많은 요리사들이 운암정을 스쳐갔어요. 사연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진 수 : 운암정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성 찬 : ...

어느새 냇가에 다다른 성찬과 진수.
징검다리도 없는 냇가다.

진 수 : 어머!
성 찬 : (소에게) 미안하다, 네 신세 좀 지자.

성찬, 진수를 번쩍 들어 소 등에 태운다.
까악! 비명 지르는 진수.
비명 지르고 까르르 웃으며 냇가 건너는 성찬과 진수..그리고 소.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다.

씬 39 호성의 집

손에 두루마기 휴지든 호성.
급한듯 몸을 배배 꼬며 뒷간 문을 연다.
그리고 딸깍! 전등 켜는 순간 어둠 속 물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으아~ 기겁을 하고 자빠지는 우중거.

호 성 : 누..누구요.

변소 안 우중거, 뒤돌아선다.

우중거 : 이제야 알았구만유.
호 성 : 우..우상병? 니가 여기 왜 있어?
우중거 : 구병장님이 그러셨지유? 라면 면발이 왜 꼬불거리는지 아냐구.. 이제야 알았시유.
호 성 : (급하다) 나와, 냄새나는 똥간엔 왜 들어가 있어?
우중거 : 면발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꼬이고 꼬인 우리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이쥬?
짜고 맵고 톡 쏘는 국물엔 우리의 고단한 생활이 담겨있고유.
호 성 : 나 급해. 빨리,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중거 : 맞아유. 맛의 진실은 가까운데 있었시유.
그 때 먹던 라면 맛을 다시 느끼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해유.

몽둥이 집어드는 우중거.
다짜고짜 호성 손에 쥐어준다.

우중거 : 때려줘유, 구병장님. 옛날 군대있을 때처럼 사정없이 때려줘유.

호 성 : 뭐..뭐?

우중거 : 부탁 드려유!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개패듯이 해줘유.

호 성 : 나 급하했지? 일단 나와, 싸고 때려줄게.

우중거 : 맞기 전까진 한발자국도 못 움직여유.

호 성 : (엉덩이 움켜 잡고 식은땀 뻘뻘) 미친놈.. 너 죽고 싶어.

우중거 : (단호한) 죽어도 좋아유. 그때 그 맛만 다시 느낄 수 있으면 죽어도 후회 안혀유!

호 성 : (안되겠는지) 앞드려.

우중거 : 고마워유~

호 성 : (버럭) 어서 앞드

억! 막 밀려오는지 엉덩이 움켜잡는 호성.
잠시 몸 구부리고 호흡조절 헉!헉!

호 성 : 중간에 싸면 니 책임이다.

우중거 : 합! (기합 넣고 앞드린다)

- - -

동 안방.

퍽! 아아악!! 느닷없는 비명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호성처.

- - -

변소 앞 호성.

한손은 엉덩이 틀어막고 다른 한손은 몽둥이 휘두르는 해괴한 모습.

초인적 의지로 버텨내는 우중거.

- - -

안방.

눈물 콧물 뒤범벅된 우중거가 냄비 뚜껑을 연다.

허열게 올라오는 라면 연기.

호성과 호성처는 그 모습 빤히 보고 있다.

먹기도 전에 울컥하는 감정. 아파선지 감격해선지 알 수 는 없다.

한 젓가락 떠서 먹는 우중거.

호 성 : ..어때. 맛이 느껴져?

우중거 : ..어..어..어..

호 성 : 말을해. 어떠냐구!

우중거 : 어...어..어.. 어뜨거.

호 성 : ...!/?

씬 40 성찬집 마루

상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순두부찌개.

진 수 : 할아버지 순두부찌개 드시고 싶다 그랬죠? 제가 한 거예요. 드셔보세요.

성 찬 : 울 할아버지 보기보단 입맛이 까다로운데...

성 현 : (숟가락을 들고 순두부를 휘휘 젓는다)

진 수 : 어서 드세요. 제가 짠 건 몰라도 순두부찌개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성 현 : (한술 뜬다. 맛보고 한술 더 뜬다)

진 수 : (성찬에게) 보셨죠?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순간 상을 뒤집어 엮는 성현.

씬 41 호성의 집 안방

우중거 : (울먹) 이 맛이 아니유..이 맛이 아니란 말예요..

호 성 : (난감한) ...덜 맛았나?..

우중거 : ..!!..

씬 42 성찬의 집

마루에 걸터앉아 울고 있는 진수.

마스카라 번져가며 훌쩍훌쩍.

성현, 슬그머니 진수 옆에 박카스 한 병 내려놓는다.

진 수 : (돌아앉으며) 됐어요. 안 먹어요.

성 현 : (가까이 들이 민다)

진 수 : 안 먹는다니까요?

성 현 : (받으라며 애원조로 본다)

진수, 박카스 잡으려다가 말고

진 수 : 그때처럼 “도둑년! 내 박카스 내놔!” 그럴 거 아니죠?

성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진수 손에 박카스 쥐어준다.

진 수 : (마음이 다소 풀리는 듯) 아깐 너무하셨어요.

딸깍! 박카스 뚜껑 돌려 따는 진수.

- - -

길길이 날뛰는 성현.

성 현 : 이년이 내 박카스 훔쳐갔다!! 도둑년! 내 박카스 내 놔!!

진수, 아이처럼 엉엉 울며 도망쳐 나온다.
푸우~ 한숨 내쉬는 성찬.

씬 43 방송국 공개홀

본선대회가 열리고 있는 공개홀.
진출한 20여명의 참가자들이 조리대 앞에 도열해 있다.
나란히 선 봉주와 성찬.
떠오르는 자막 - 본선 牛(우)
어두워지는 장내. 대형 스크린에 동영상 이 흘러나온다.

성 우 : 조선조 궁중음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재료는 다름 아닌 소였습니다.
평생 밥을 갈다가 죽어서는 주인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소의 삶은 우리 민족의
애환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굶어진 대령숙수의 맥을 잇는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대회에 최고의 재료인 한우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박수 터져 나오며 다시 밝아지는 장내.

국 장 : 본선은 예선과는 달리 종합 점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획득한 종합 점수에 따라..

대회 스케치하던 진수가 성찬 뒤로 다가온다.

진 수 : (속삭이는) 어제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성 찬 : ...?

진 수 : 엄마가 그러는데, 제대로 된 순두부찌개엔 고추기름이 빠져선 안된대요.
나, 다시 도전할 거예요.

성 찬 : (미소)

씬 44 몽타쥬

드디어 본선을 알리는 북소리.
장내 스크린을 통해 제시되는 과제 “肉膾(육회)”
- - -
장내로 들어오는 꾸리살. 차돌배기. 아롱사태. 도가니살. 방심살..
아롱사태를 선택한 성찬과 봉주.
서로를 의식하며 최대한 얇게 썬다.
맛 보는 심사위원들. 전광판에 뜨는 각자의 점수.. 점수들..
- - -

완자탕을 만드는 참가자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로 탈바꿈하는 재료들.
드디어 전광판에 점수가 뜬다.
봉주190점. 성찬200점.
일그러지는 봉주 얼굴 대형 스크린에 뜬다. 깜짝 놀라 표정 바꾸는 봉주.
하하하 웃으며 가식적인 제스츄어.

- - -

성찬의 집.
진수가 끓여준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먹는 성현.
아싸! 성찬과 하이파이브.

- - -

진수, 마루에 걸린 성현의 젊은 시절 사진을 한참동안 올려다 본다.

- - -

장내 스크린 통해 제시되는 과제 훑(적)
화양적. 너비아니. 갈비 만드는 참가자들.
점수 뒀다 사라지고, 초대 가수 노래하고, 탈락자들 짐 싸서 퇴장하는
다양한 본선의 풍경들..
이마에 땀 맺히는 성찬.
최선을 다하는 봉주.

- - -

박카스 건네는 성현.
진수, 정중히 사양하며 자신이 준비해온 박카스 꺼내 마신다.

- - -

남은 참가가 10팀.
탈락자들의 빈 조리대가 군데군데 비워져 있다. 전광판에 뜨는 10팀의 점수.
성찬 480점 / 봉주 470점 / 3등 320점 / 4등 290점' / 5등...
자존심 상한 봉주, 관중석의 남자(백화점 점장)와 눈 마주친다.
성찬은 여유 있는 표정이다.

국 장 : 이제 열 명만이 남았습니다만 최종결선의 티켓은 다섯 장 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종결선의 과제를 발표 하겠습니다.

어두워지는 장내.
빨갈게 타오르는 숯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다.

국 장 : 다음 과제는 구이입니다. 하지만 심사의 주 포인트는 바로 숯입니다.
요리의 기본은 불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최고의 고기를 구워내기
위해선 역시 최고의 숯이 필요합니다. 그 최고의 숯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다음 과제가 되겠습니다.
열흘 후 이 자리에서 최고의 숯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씬 45 덕기의 정육 식당

달려와 멈추는 트럭.

진 수 : 여긴 왜요? 숯 구하러 간다면서요?

성 찬 : 운암정 숯은 전부 덕기가 담당했었어. 전국에 유명한 숯쟁이들은 다 께차고 있을걸?

식당 앞. 가족들의 배웅을 받는 덕기.

트럭으로 달려와 보조석에 오르려 한다.

그러나 동시에 타려다 어깨 부딪히는 호성과 덕기. 남은 자리는 하나뿐.

호 성 : (약수 건네며) 나 성찬이 고향 친구 구호성이야. 말 놔도 되지?

덕 기 : 장덕기입니다.

호 성 : 어, 반가워. (하며 차에 오르려다 또다시 덕기와 어깨 부딪히는) 동생, 여긴 내 자린데..

덕 기 : 가는 길 모르잖아요.

냉큼 올라타는 덕기. 광! 차문 닫아버린다.

궁시렁 짐칸에 오르는 호성, 트럭이 출발하자 중심 잃고 휘청.

씬 46 운암정 앞

운암정 마크가 찍힌 3대의 붓고 차량.

한복 차려입은 운암정 직원들이 각양각색의 요리들을 차에 싣고 있다.

붕주와 대화하는 백화점 점장.

점 장 : 이번 시험이 중요한건 오사장님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백화점 직원들 모두 운암정을 응원하고 있어요.

붕 주 : 근데 왜 매장 확대를 연기하는 겁니까? 이달 초에 부산 대구에 7군데,

대전 강원에 각각 4군데씩 늘려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점 장 : 매장 확대는 이번 요리시험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붕 주 : 뭐요?

점 장 : 현재 종합점수 470점으로 2등 하고 계시죠?

저희 매장에서 그 효과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붕 주 : (말 문 막힌) ..!!

점 장 : 꼭 이기세요. 얼마 전에 공장설비까지 늘리셨다는데 지면 재앙 아닙니까?

운암정의 오붕주 사장이 대령속수의 칼을 뺏겨서야 말이 안되죠.

가는 점장.

붕주, 울그락 불그락..

씬 47 국도 분기점

분기점을 알리는 이정표.
스르르 멈춰서는 트럭.

덕 기 :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거든? 왼쪽으로 가면 좋은 숲을 구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더 좋은 숲을 구할 수 있어. 어디로 갈래?
호 성 : (짐칸. 머리 형클어져) 지금 장난해? 당연히 오른쪽이지.
덕 기 : 하지만 그쪽으로 가면 아예 숲을 못 구할지도 몰라. 확률은 10%?
진 수 : 그럼 안 되죠. 도박에 운명을 걸 순 없잖아요.
덕 기 : 도박이 아니라 모험이죠.
호 성 : 그럼 왼쪽이네. 좌회전.
덕 기 : 어떡할래 형?
성 찬 : 내가 필요한 건 좋은 숲이 아니라 최고의 숲이야.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는 성찬.
일동, 일제히 오른쪽으로 몸 쏠린다.

씬 48 교도소 앞

교도소 앞에 선 성찬 일행.
촬영하는 진수.

성 찬 : (어리둥절) 여기서 숲을 구해?
덕 기 : 최고의 숲쟁이가 이 안에 있거든.
호 성 : 교도관이야?
덕 기 : 사형수야.
진 수 : (어이없는) ...!?!?

씬 49 교도소 내부 (복도/면회실)

실루엣으로 보이는 사형수(한성일)의 뒷모습.
교도관과 함께 긴 복도 걸어간다.

- - -

면회실 칸막이 너머 기다리고 있는 성찬 일행.
사형수가 들어서자 긴장한다.

덕 기 : 한씨 아저씨.
성 일 : ...
덕 기 : 저예요, 운암정 덕기. 아저씨 만나러 산에 갔다가 우연히 산삼 캐서 술안주로
나눠 먹었잖아요. 기억 안나요?
성 일 : ...

덕 기 : ..부탁하나 하려구요. 처음 면회 와서 부탁이나 하구.. 염치없죠?
중요한 요리 시합이 있는데 아저씨 숯이 필요해요.

성 일 : ...

덕 기 : (대꾸없자) 아저씨.

성 일 : 조용히 죽자. 자꾸 건드리면 귀신 되서 괴롭힌다.

일어서는 성일.

시력이 나쁘지 두꺼운 안경 쓰고 더듬더듬.. 교도관의 안내로 면회실을 나간다.

- - -

동 밖 면회 대기실.

호 성 : (나오며 투덜) 내가 뭐랬어? 바로 좌회전 했으면 헛수고 안했잖어.

이때 한복 차림의 운암정 사람들, 우중거를 선두로 음식 실은 수레 밀며 나타난다.

각양각색의 화려한 요리에 가야금 팽과리 민요가수까지 대동한 그들.

줄 끝은 봉주가 뒤따르고 있다.

거만스런 걸음으로 성찬 일행을 지나는 봉주.

덕기 뒤통수를 야무지게 후려친다.

봉 주 : (멀어지며) 너 오랜만이다?

폭발하는 덕기, 봉주 향해 다가가는데 성찬이 붙잡고
카메라 들고 따라가는 진수.

진 수 : 오사장님! 여긴 웬일이시죠?

봉 주 : 맛을 통해 갱생의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운암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진 수 : 시합 준비는요? 좋은 숯은 구하셨나요?

카메라 렌즈 손으로 가려 내리는 봉주.

봉 주 : (표정 바뀌) 성찬이한테 전해. 번개탄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봉주.

경쾌한 발걸음.

덕 기 : 어떻게 알고 왔지?

성 찬 : ...!

씬 50 교도소 식당

죄수들로 가득 찬 식당.

생전 처음 본 궁중 요리에 눈이 휘둥그레..
한쪽에선 장구에 가야금에 민요가수들 목청 찢어지고,
죄수들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신이 났다.
하지만 식당 구석에 홀로 앉아 묵묵히 밥을 먹는 성일. 늘 먹는 된장국에 콩밥이다.
마주 앉는 봉주.

봉 주 :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전 운암정 주인 오봉주 올시다.
성 일 : (대꾸없다) ..
봉 주 : 운암정 숯불구이가 예전만 못한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허허허.
성 일 : (반응 없다) ..

봉주, 화려한 구절판을 들이밀어 성일의 식판을 밀어낸다.
잠시 밥 먹는걸 멈추는 성일.
식판을 자기 앞으로 당겨 구절판을 밀어낸다.

봉 주 : 최고의 숯쟁이라면서요? 숯 굽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깝잖아요. 그 기술 저승 갈 때 싸갈랍니까?
(구절판 다시 들이밀며)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리죠.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성일의 표정.
다시 식판을 가져오려는데 아예 뺏어 버리는 봉주.

봉 주 : 오늘은 이런 쓰레기 안 드셔도 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지 않습니까? 하하하~

스욕 고개 드는 성일.
씨익 웃곤 그대로 봉주의 코를 물어버린다.
“아아아악!” 코를 잡고 나뉘는 봉주.
코를 감싼 손 사이로 피가 철철 흐르고 순식간에 봉주를 타고 오른 성일,
사정없이 목을 조른다.

우중거 : (달려오며) 사..장님!!

퍽! 성일이 휘두른 식판에 맞은 우중거.
그 육중한 몸이 죄수들 밥 먹는 테이블로 나뉘군다.
아! 뜨거! 궁중 전골에 얼굴 처박은 문신 남.
의자 번쩍 들어 쓰러진 우중거를 내리찍는데
순간 몸 날려 던치는 운암정 직원.
きゃ아악! 민요 가수들 비명소리 요란하고
교도관들 몽둥이 뿔아들고 달려든다.
맞고 때리고 말리고 완전 아수라장된 식당.
컱컱 목 졸려 눈 돌아가는 봉주.
교도관 몽둥이가 성일이 등판을 사정없이 내리쳐도 막무가내.
급기야 전기 충격기 꺼내든 교도관, 성일의 목에 충격기 쑤셔박자
지지직-! 발작 일으키며 기절하는 성일.

봉주 몸에도 전기가 흘러 덩달아 발작 일으킨다.

씬 51 면회 대기실

교도소 떠나지 못하고 서성대는 성찬.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다.

호 성 : 글썸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 숯 만드는 데만 일주일 걸린다잖아.
(덕기에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바랄 걸 바래야지!

덕 기 : ..

호 성 : 아니 얘기를 들었다 쳐.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숯이 얘기만 듣고 만들 수 있나?
(덕기보며) 너 만들 수 있어?

덕 기 : 왜 나한테 그래요~?

이때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봉주.
코엔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완전 만신창이.
여전히 전기가 오르는지 움찔 움찔.. 밖으로 사라진다.

성 찬 : (진수에게) 왜 저래요?

진 수 : (한숨) 한성일씨 독방에 갇혔어요.

아뿔싸! 이마 툭툭치는 덕기.
이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걸어 나오는 할머니, 의자에 힘없이 걸터앉는다.

진 수 : (성찬에게) 매점 아저씨가 그러는데, 한성일씨 어머니래요.
몇 년째 매일 면회 오시는데 아들이 한 번도 안 만나 줬대요.

바라보는 성찬.

씬 52 몽타쥬 (교도소 인근 도로/달동네/시골 비포장 길)

달리는 성찬의 트럭.
저만치 걸어가는 한성일의 노모 보인다.
지치고 쓸쓸한 뒷모습.
성찬이 차를 세운다.
- - -

달리는 성찬의 트럭.
성찬 옆 보조석엔 노모가 앉았고
짐칸엔 호성. 덕기. 진수가 나란히 앉았다.
- - -

달동네 내려오는 성찬의 트럭.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잘 가라 손 흔드는 성일의 노모.

- - -

시골길을 달리는 성찬의 트럭.
풍경화속 그림처럼 고즈넉한 풍경.

진 수 : (off) 할머니랑 무슨 얘기 나눴어요.

성 찬 : (off) 아드님 얘가요.

진 수 : (off) 안됐어요. 참 급게 생기셨던데..

성 찬 : (off) 젊었을 때 남편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죽었데요.
생계가 막막해지고 아들이 굶는 게 안타까워서 시어머니한테 애를 말기고
이웃 마을로 시집갔는데, 그때가 아저씨 일곱 살 때였데요.

씬 53 별판 / 기와집 / 솟가마터 (과거)

별판.
하염없이 걷는 어린 성일.
고무신이 닳아 발가락이 나와도 걷고 또 걷는다.

성 찬 : (off) 어린 마음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아저씨 걸어서 4시간이나
되는 곳으로 엄마를 만나러 갔데요.

넓은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선 성일.
배가 고프지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을 연다.
이때 나타난 엄마의 새 남편.

새남편 : 거 누구다냐? 누구여? 워매 이 도둑놈의 새끼.
(부지깽이로 성일을 패며) 쥐방울만한 간나구가 혈짓이 없어서 놈에꺼를 도둑질
허야, 어? (인정 사정 없다) 벼락맞을 노메 새끼, 디저라 이 새끼야.

개처럼 맞으며 마당으로 나온 성일.
엄마와 마주친다.

성 일 : (반가운) ..어..엄니.

남편의 부지깽이 뺏어드는 엄마.

엄 마 : 비키시오 잉! 나가 다리 몽둥일 딱 뿐질러 불량께.
(때리며) 금께 우리집서 열매나 어치꼬령 돌려갓냐 이놈아!

성 일 : 어..엄니.. 저여요, 엄니!!

새남편 : 환장 허겼네, 저 놈이 암 한테나 엄니라 카는게 정신이 돌았는갑네.
(가며) 여기 다시는 못 뽕작거리게 해놓소잉.

성 일 : 엄니..엄니..

엄 마 : 이놈아 싸게싸게 없어져부러. 또 걸리운 빼다귀도 못 추링께.

한쪽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도망치는 성일.
그 모습 안타깝게 보고 선 엄마.

엄 마 : (글썩) 이놈아..밥태기는 얻어 먹고 싸돌아 댕기냐. 다시는 오지 말어.
나는 인자 니 엄니가 아닝께..

영영 울며 벌판을 되돌아가는 성일.
한쪽 고무신은 온데 간데 없다.

성 찬 : (off) 하지만 그 다음날도 아저씨 엄마를 보러갔데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 솔뚜껑을 연다.
아직 식지 않은 가마솔 안. 찌그러진 양재기 그릇에 고구마가 담겨있다.
허겁지겁 먹는 성일. 동치미 담긴 그릇 발견하고 벌컥벌컥 마신다.

성 찬 : (off) 어린 아이가 4시간이나 걸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엄마는 아직 식지 않은 가마솔 안에 고구마를 놓고 발일을 나갔어요.
아들이 와서 먹으라구요. 아저씨 고구마 훔쳐 먹는 맛에 먼 길도 마다않고
매일 달려갔어요.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무 한그루.
올려다 보면 가지에 손수건 한 장이 걸려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저멀리 신나서 달려가는 성일.

성 찬 : (off) 엄마와 아들은 무언의 약속을 했어요.
손수건이 걸려있을 땐 남편이 없으니 와도 좋다는 신호였죠.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은 나무.
비가오고.. 바람 불고.. 하루하루 날이 바뀌어도 손수건은 안 걸려 있다.
성일, 안되겠는지 단숨에 달려 엄마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미 이사 가고 없는 텅 빈 집.
성일, 가마솔을 열어본다.
차갑게 식은 가마솔 안엔 썩어버린 고구마.
엄니~ 부르며 서럽게 우는 성일.

성 찬 : (off) 차마 이사 간다고 말 할 수 없었데요.
울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얘기할 순 없었데요.

나무를 패는 남자.
건강하게 성장한 성일이다.
가마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지피고 불꽃을 바라보는 성일.

성 찬 : (off) 우연히 산속에 들어가서 숲을 굽게 된 후로는
한 번도 산을 내려온 적이 없었데요.

썩 54 언덕

풀 뜯는 소.
언덕에 앉은 성찬과 진수.

성 찬 : 그러다 헤어진 엄마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최고의 숲쟁이가 된 아저씨는 자기가 구운 최고의 숲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결국 숲을 싸들고 산을 내려갔어요. 엄마를 만나려고요.

썩 55 엄마의 집 (과거)

거의 쓰러져가는 집.
창호지 문 안쪽에선 남자의 고향 소리와 엄마의 비명소리.
성일, 가져간 숲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간다.
얼어맞고 있는 엄마.
새 남편에게 맞고, 그 아들에게 맞고..
엄마는 시퍼렇게 멍들어 처절한 몰골로 성일과 재회한다.
또다시 날아오는 새남편의 손찌검.
성일이 남자의 턱을 갈긴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엄마의 손찌검.

엄 마 :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

..남의 일..
충격 받은 성일.
휘청 휘청 방을 나와 가져간 숲을 집어 든다.
그리고 반으로 쪼갬다.
예리한 송곳처럼 부러진 숲.
방으로 들어가 새남편의 목에 숲을 쑤셔 박는다.
아악! 경악하는 엄마.
성일, 눈이 뒤집혀 그 아들의 눈에도 숲을 쑤셔 박는다.
사방으로 튀는 피.
피로 뒤범벅된 성일..
엄마가 성일의 등에 매달려 울부짖는다.
넋이 나간 성일.
풀썩, 무릎 꿇고 멍~

썩 56 성찬의 집

이른 새벽.
마당 한 켠에 설치된 가마솥에 불을 때는 성찬.

- - -

솔뚜껑 여는 손.
뜨거운 연기가 화면을 뒤덮는다.
- - -
사기 그릇의 뚜껑을 덮는 성찬. 정성껏 보자기로 싸서 묶는다.

썸 57 성일의 독방

덜컹! 열리는 배식구.
보자기에 싸인 무엇이 들어온다.
다시 닫히는 배식구. 걸음소리 멀어져 간다.

- - -
벽에 기대고 앉은 성일.
몸을 짓누르는 적막.
성일의 손이 보자기로 향한다.
서서히 풀면 사기그릇 하나.
그릇 뚜껑을 열면 썸 고구마가 있다.
한참을 바라보는 성일.

- - -
회상.
엄마의 집 부엌 가마솥을 여는 어린 성일.
아직 온기가 남은 고구마가 놓여져 있다.
허겁지겁 먹는 어린 성일.

- - -
현실.
고구마 하나 집어 드는 성일. 한입 베어 문다.

...
가슴 먹먹해지는 성일.
첻! 웃어보지만 어느새 흘러내리는 눈물.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급기야 서럽게 흐느끼는 성일.

썸 58 몽타쥬

세면장.
수십명의 죄수들 통에서 면도하는 성일.
다소 들뜬 표정.
- - -
달리는 버스.
한복 곱게 차려입은 성일의 노모가 창밖을 바라본다.
멀리 보이는 교도소 건물.
상기된 표정.

- - -

감방 내부. 얼굴에 스킨 바르는 성일.
행여 먼지라도 묻었을까 죄수복 털어낸다.
문 앞 걸어온 교도관.

교도관 : 47354번 면회.

성 일 : (환해지는) 네!

- - -

복도.
교도관들과 함께 복도를 걷는 성일.
기쁘고 들뜨고 소풍가는 아이 표정이다.

- - -

면회 대기실에 앉은 성일의 노모.
가방에서 고무신 하나를 꺼낸다.
땀고 구멍 뚫린 성일의 검정 고무신..
마치 아들을 만난 듯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 - -

면회실 가는 길.
따뜻한 햇살이 성일을 비춘다.
마침내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좌우로 길이 갈라지는 분기점.
성일, 면회실이 있는 왼쪽으로 몸을 트는데
반대편으로 성일을 잡아끄는 교도관들.

성 일 : ..!!..

교도관들 : (표정이 굳어있다)

성 일 : (거칠게 반응) 그쪽이 아냐! 이쪽이야 이쪽! 어.. 엄마는 이쪽에 있다니까!!

저항하는 성일을 끌고 사형장 쪽으로 가는 교도관들.
성일, 맥없이 면회실 가는 길을 돌아본다.
여전히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
지저귀는 새소리..

성 일 : (편지글) 잊어야 하는데... 다 잊어야 하는데...

아직도 불을 떠올리면 눈이 아파오고, 숲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 - -

감방 안. 숲 굽는 법을 적고 있는 성일.
편지 뒷면엔 간단한 약도가 그려져 있다.

성 일 : (편지글) 아마도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불질을 하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 - -

화장터 굴뚝 위로 한줄기 연기가 피어오른다.
아들의 유골을 안고 버스에 오르는 노모. 성찬과 진수에게 잘가라 손 흔든다.
출발하는 버스. 눈물 닦아내는 진수.

성 일 : (편지글)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불질을 했어요. 결국 그 뜨거운 불꽃이 점점 내 눈을 멀게 했지만 난 상관없었어요. 그 불 속엔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늘 있었으니까요.

- - -

산길을 달리는 성찬의 트럭.
성일이 그려준 약도를 보는 덕기.

성 일 : (편지글) 고마워요 성찬씨. 당신이 보내준 고구마는 내 생애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집이 보이던 언덕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최고의 숲감이죠. 그 아름다운 불꽃이 최고의 숲을 만들어 줄 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언덕을 오르는 트럭.
저만치 비범해 보이는 나무 한그루가 모습을 드러낸다.
차에서 내리는 성찬 일행들.
바위틈에서 자라 지금은 뾰뾰하게 말라죽은 나무를 유심히 바라본다.

덕 기 : 물갈나무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바위를 뚫고 나온 건 최고 중에 최고로 치지.
(나무 두드려보며) 대단해. 이걸로 숲을 만들어서 부딪치면 아마 쇠소리가 날걸?
(흥분해서) 형. 어디가도 이런 나무는 못 찾아! 이걸 최고의 숲감이야.

대꾸 없는 성찬. 나뭇가지 위를 올라다 보고 있다.

성 찬 : 보여? 이 나무.. 아저씨가 말했던 그 나무였어.

올려다보는 덕기.
바람에 손수건 하나가 나부낀다.
진수의 카메라에 비친 성찬의 얼굴. 글썽 눈물 맺혀 있다.
그런 성찬 일행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망원경 시야 하나.
코에 붓대 감은 봉주다.

봉 주 : ...

썩 59 숲가마

나무 패는 성찬과 덕기.

- - -

가마 안에 나무 채우는 성찬 일행.
불구멍만 남기고 숲가마 입구를 진흙으로 발라 막는다.

- - -

모터 작동 시키는 덕기.
열기를 가마 안으로 불어 넣는다.
후욱~! 번지는 불기운.

- - -

숲가마 굴뚝을 맹렬하게 빠져나오는 연기들.

- - -

숲가마 입구를 깨는 호성.
강렬한 불길의 어둠을 집어 삼킨다.
빛과 열기에 일제히 눈 가리는 성찬 일행.

- - -

숲을 꺼내는 성찬 일행들.
가마 속 불길과 시뻘건 숲덩이가 아름답다.

- - -

여전히 타오르는 가마 속 불꽃.
성찬이 멍~하니 불꽃을 바라본다.

플래쉬 컷 - 눈이 머는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불꽃을 바라보는 숲쟁이 성일.
불꽃 속에서 환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사라진다.
입가에 미소 번지는 성일.

성 찬 : (나란히 앉은 진수에게) 이거야..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아저씨가 보고 싶어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 불꽃 속에서 그리워하는 건 뭐든지 볼 수 있으니까.

진 수 : 성찬씨 뭐가 그리워요?

성 찬 : (골똥한) ..글쎄.. 옛날 일들..
엄마가 소풍날 아침에 만들어준 김밥하고 감기 들었을 때 사다주신 복숭아 통조림..

진 수 : 우리 엄마 금방한 밥에 마가린 녹여서 간장에 비벼줬어요.
기름 덩어린데, 그땐 그게 왜 맛있었죠?

성 찬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대요.
멋있는 말이죠?

엉덩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성찬.

성 찬 : 읊내 약국에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덕기가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진 수 : (작업하는 덕기에게)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덕 기 : 삼겹살 사와요. 가마 식기 전에 파티 해야죠.

진 수 : 샴이나 깨끗이 닦아줘요.

씬 60 인근 숲 속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돈 봉투 건네는 우중거.
덜컹덜컹 성찬의 트럭이 산길을 내려가자 용역들에게 수신호 보내는 봉주.
용역들, 일제히 마스크 쓰고 소화기 하나씩 집어 든다.
숲을 빠져나와 숲가마 쪽으로 가는 용역들.
어둠 속에서 눈빛 번뜩이는 봉주.

씬 61 숯가마

마지막 숯을 꺼내는 덕기와 호성.
인기척에 돌아보면 펑! 소화기에 얻어맞고 호성 나뒹군다.
덕기는 아슬아슬 피했지만 달려든 용역들의 무수한 발길질.
준비한 몽둥이가 가마를 박살낸다.
덕기, 필사적으로 말리지만 역부족. 가마가 완전히 주저앉는다.
슈슈슈-! 완성 직전의 숯에 허연 소화기 쏘아대는 용역.
안돼! 외치는 호성. 그러나 점점 붉은 빛을 잃어가는 숯.

씬 62 읍내

달리는 봉주의 차.
용역이 봉주에게 박스 하나 건넨다.
열어보는 봉주. 탄탄하고 잘생긴 숯이 가득하다.
흡족한 봉주, 고개 돌려 차창 밖 바라본다.
약국에서 나오는 성찬과 진수.

봉 주 : ...

씬 63 숯가마

차에서 내리는 성찬과 진수.
벌어진 상황에 아연실색.
가마는 주저앉고 소화기 흰 분말에 주변은 아수라장.
진수, 달려가 쓰러진 호성을 부축한다.
입술 터진 덕기, 절뚝대며 다가와.

덕 기 : ..형.

성 찬 : 어떻게 된거야? 괜찮아?

덕 기 : 숯이 못쓰게 됐어. (울먹울먹) 미안해 형. ..못 지켜서 미안해.

혼란스런 성찬, 어찌할바 모른다.

씬 64 방송국 공개홀

떠오르는 자막 - 火(화)
화구 앞에 선 10명의 참가자들.
관중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한팀 한팀 소개된다.
드디어 호명되는 성찬의 이름.
관중석 한편엔 성일의 노모가 아들의 영정을 안고 있다.

성 찬 : ...

덕 기 : ...

후욱~! 각자의 화구에 불을 붙이는 참가자들.

심사위원들이 채점표 들고 다가간다.

살치살 구워 올리는 참가자A.

심사 1 : (고기 집어 먹는다) 음~ 바다위에 눈이 내리듯 혀 위에서 살살 녹습니다.

돌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요.

심사 2 : 찢찢 압축탄을 썼어. 돌이 먹으면 하나는 죽겠군요.

심사 1 : (하나 더 집어먹으며) 압축탄이 뭐요?

심사 2 : 폐자재를 섞어 만든 탄입니다.

심사 1 : (우웩 구역질)

참가자B, 번개탄에 불 피우고 있다.

할 말 잃고 얼른 통과하는 심사위원들, 드디어 봉주 앞에 선다.

청명한 빛을 내며 활활 타오르는 숯.

심사 2 : 이제야 숯다운 숯을 보네.

심사 3 : 오호~ 불꽃 색깔이 청명한 게 기대됩니다.

심사 1 : (군침) 어서 맛 좀 봅시다.

봉 주 : (고기 굽는다) 구이의 생명은 육즙이죠. 센 불에 고기 표면을 구운 다음 재빨리 뒤집어야 이렇게 육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사 3 : (먹는다) 육즙을 보호하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역시 오사장다워요.

심사 2 : (씹으며) 음~ 고기에서 숯의 향이 느껴집니다.

최고예요. 물갈나무 숯 맞죠?

이때 심사위원 밀치며 나타난 덕기.

다짜고짜 봉주 먹살 잡아챈다.

덕 기 : (독기 품고) 나쁜새끼! 니가 훔쳤지. 니가 우리 가마 부셨지?

봉 주 : (컹컹) 놔.. 이거 안 놔?

성 찬 : 덕기야!

말리려고 달려드는 성찬.

호 성 : (막아서며) 가만 뉬 뒤.

호성 밀치는 성찬.

덕기 향해 달려가지만 한발 늦었다.

퍽! 봉주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은 덕기.

억! 봉주 나동그라지고 봉대 감은 코에서 피가 터져 나온다.

덕기 낚아채는 성찬.

성 찬 : 너 왜 그래? 미쳤어?

덕 기 : ..형은 화도 안나? 저 새끼가 훔쳐간 거 틀림없잖아. 뭐가 더 필요해?
봉 주 : (기 안 죽고 다가와) 너 이 새끼야, 증거 있어?

퍽! 또 다시 봉주 코를 들이받는 덕기.
억! 바닥 데굴데굴 구르는 봉주.

씬 65 동 시합장 복도

홀로 앉아 담배 피는 덕기.
시합장 안은 박수 소리와 가수들의 축하공연 소리..
호성이 시합장에서 나온다.

덕 기 : (기죽어) 형님, 어떻게 됐어?
호 성 : 0점 받았어. 실격이야.
덕 기 : ...(면목 없다)
호 성 : 운암정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 마지막 과제에서 월등하게 못 이기면
진짜 끝장이야. (옆에 앉는다)
덕 기 : 마지막 과제가 뭐래요?
성 찬 : 정형이랑 육질판정. 소는 네가 전문이지?
덕 기 : 두고 봐. 봉주 코를 납작하게 해 줄테니까.
호 성 : 코뼈 주저앉았다고 고소한대. 관데 또 깔려구?
덕 기 : (웃는다) 성찬이 형은?

호성, 턱 끝으로 복도 끝을 가리킨다.
따스한 햇살 내리쬐는 복도 끝, 성찬이 성일 노모와 만나고 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군 성찬.
성일모, 그런 성찬을 아들처럼 안아준다.
멀리 그 모습을 담고있는 진수의 망원렌즈.
파인더 속 성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역시 눈가 촉촉해지는 진수.

씬 66 봉주의 목장

넓고 푸른 목장.
지휘자와 7인조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한다.
그 앞에서 풀 뜯어 먹는 소떼들.
봉주가 진수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봉 주 :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 소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폭이 넓은 축사. 완벽한 통풍. 바닥엔 소금을 섞은 황토 흙을 깔았
진 수 : 잠시만요, 카메라 안들었어요.
봉 주 : (짜증) 아~놔~

진 수 : 돌았어요.
 봉 주 : (가식)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 소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폭이 넓은 축사. 완벽한 통풍. 바닥엔
 진 수 : 잠시만요, 밧데리가..
 봉 주 : (흔жат말) 돌아버리겠네.
 진 수 : (밧데리 갈고) 예, 돌았어요.
 봉 주 :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 소들은 날 좀 보소~

울리는 진수 핸드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씩씩대며 그냥 가버리는 봉주.

- - -

전기 바리깡으로 암소의 털을 미는 우충거.
 봉주가 털 깎인 부위에 초음파 측정기 갖다 댈다.
 모니터에 드러나는 균일한 마블링.

봉 주 : 소의 등급을 매길 땐 1번 요추를 끊어서 등심을 보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내 마블링을 한 눈에 볼 수 있죠.
 진 수 : 초음파까지 이용하는 건 처음 봐요.
 봉 주 : (뒷짐 지고 걸어간다) 저는 프롭니다. 비과학적이고 감에 의존하는 아마추어들하곤
 차원이 달라요. (준비된 의자에 기대 앉는다)

봉주의 어깨를 주무르는 미니스커트의 안마사.
 카메라 빠지면 여러명의 남자 안마사들이 소들의 근육을 풀어주고 있다.
 진수, 다소 기가 죽은 표정.

썩 67 황성 우시장

떠오르는 태양.
 그 빛을 받은 소들로 우시장은 누런 바다를 이룬다.
 거래를 붙이는 중개인들의 분주한 움직임.
 고성 오가는 가격 흥정.
 계근장엔 줄지은 소들이 체중계에 오르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부지런히 소를 고르는 성찬과 덕기. 힘들고 지친 표정이다.
 호성, 흥분해서 소리친다.

호 성 : 심봤다!

달려가는 성찬과 덕기.
 집채만 한 소가 딱 버티고 섰다.

덕 기 : (실망) 소를 덩치보고 잡아먹나? 좋은 고기는 지방이 근육 속에 박혀있어야 하는데
 애는 지방이 근육을 감싸고 있어.
 주 인 : (강원도 사투리) 니미, 니가 소 뺏떼기 안에께 들어가 봤나?

껌대기만 보고 데워 아는 척 하네. 한번 짜개볼래?

덕 기 : (피한다) 많이 파셔요~

어떤 소를 유심히 살펴보는 성찬.

덕 기 : (다가가며) 괜찮은데? (소 입을 열어본다) 3살은 됐고...

(뿔 보며) 각륜이 없는 걸로 봐선 영양상태도 좋은 것 같고.. 형, 이거 하자.

성찬, 고개 가로 저으며 가버린다.

후~ 덩고 짜증나는 덕기. 따라가며

덕 기 : 도대체 형이 찾는 소가 뭔데?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벌써 며칠 짜야?

공주 청양 홍성 전국에 있는 우시장 다 돌아다녔어. 이젠 시간도 없다니까!

성 찬 : ... (대꾸 없이 다른 소를 보러 간다)

호 성 : (핫도그 입에 물고) 야! 저기 더 큰 거 있어. 완전 괴물이야.

덕 기 : 니미..(가버린다)

씬 68 성찬의 집

트럭에서 내리는 성찬과 덕기, 호성.

모두 지친 표정.

덕 기 : 정말 형 머리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도대체 그 속엔 어떤 소가 있는 건데?

내가 볼 땐 형이 구하는 소는 이 세상에 없어. 형은 지금 세상에 없는 소를 구하..

순간 말 문 막힌 덕기.

걸음 멈춰 서서 외양간 성찬의 소를 바라본다.

후다닥 달려가 소를 살피는 덕기. 흥분한 얼굴.

덕 기 : 아우 시발, 이러니 다른 소들이 눈에 안 들어오지!

나 참, 다리 아프게 우시장은 뭐 하러 돌아다니는 건데?

성 찬 : ... (표정이 어둡다)

덕 기 : 내가 볼 땐 더 이상 찾아도 없어. 끝.

호 성 : (슬쩍 다가가) 그만 해라.

덕 기 : 왜 그래? (소머리 툭툭 치며) 형, 찾아봐야 없대니까? 애 잡자 응?

덕기 끌고 가는 호성.

“왜? 왜 그래?” 하며 대문 밖으로 끌려나온 덕기.

호 성 : (성찬이 들을세라) 재는 소가 아니야 임마.

덕 기 : 그럼 돼지야?

호 성 : 성찬이 동생이야. 성찬이가 새끼 때 받아서 그동안 동생처럼 키운 소라구!

근데 그걸 잡어? 넌 니 동생 잡을 수 있어? 니 가족 잡을 수 있냐구!

덕 기 : 그래도 짐승이잖아.

호 성 : 글썄 성찬이한테 아니라니까. 한마디만 뺏긔해! 확 받아 버릴테니까.

덕 기 : (할 말 잃고) ..!

씬 69 성찬집 마루

추적추적 내리는 비.

마루에 얼찌감치 떨어져 앉은 성찬과 덕기.

덕 기 : (침묵 깨고) 역시 형답다.

성 찬 : ...

덕 기 : 형 운암정 있을 때도 어르신한테 혼 많이 났잖아.

재료를 재료로 보지 않고 쓸데없이 마음 준다고, 그래선 요리 못한다고.

성 찬 : ...

덕 기 : 그땐 그런 형이 인간적이라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 땀에 힘드네.

성 찬 : ...

덕 기 : 언젠가 형이 그랬지? 소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서 내다 파는 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소중한 거니까 요리하는 사람들이나 먹는 사람들 모두 감사해야 한다고.. (성찬쪽 본다)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대며?

성 찬 : ...

덕 기 : 성일이 아저씨가 우리한테 줬던 그 나무말야..

그것도 아저씨한테 소중한 나무였겠지?

성 찬 : ...!

덕 기 : (일어선다) 어쨌든 형이 결정해. 난 무조건 믿고 따를 테니까.

가는 덕기.

반쯤 열린 방문으로 소나기를 멍하니 보고 있는 성현.

성 현 : 고사리 장마다.

성 찬 : (처마 끝 올려다본다)

성 현 : 고사리 장마 지면... 바다로 나간 배가 못 돌아와.

..고사리 장마 지면 그렇게 이별을 하는 게야...

대문 앞 우산 받쳐 들고 선 진수. 착착하다.

- - -

비 그치고 여물통에 소죽 부어주는 성찬.

성 찬 : 먹어. 너 좋아하는 보리 많이 넣었어.

먹기 시작하는 소.

성 찬 : (진수에게) 이놈이 누군지 알아요? 애네 아빠가 전국 소싸움 대회에서 우승을 네 번이나 했거든. 엄마는 또 얼마나 이뻐게?

진 수 : (미소 짓는다)

소, 커다란 눈 꿈뻑이며 성찬을 본다.

성 찬 : 운암정 나와서 널 먼저 사고, 남은 돈으로 트럭을 샀어.
그땐 먹고 사는 것 보다 같이 있어 줄 누군가가 더 필요했거든.
넌 나한테 그런 놈이야. 알아?

씬 70 성찬의 집 (과거)

홍수로 지붕만 남은 마을.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장대비.
성찬, 가까스로 지붕위에 올라선다.
순간 멈칫.
지붕위엔 목에 방울 단 성찬의 송아지가 반갑다고 울어댄다.
절망스런 표정에 스르르 번지는 미소.
가까스로 기어가 녀석의 목을 끌어안는다.

씬 71 성찬집 마당 (현재)

다음날 이른 새벽.
외양간을 나서는 소. 성찬을 따라 마당을 지난다.
좁게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 바라보는 성현.
떠나는 녀석의 뒷모습을 힘없이 바라본다.

씬 72 봉주의 목장

사방이 막힌 커다란 나무상자.
대형 기중기가 육중한 나무상자를 들어올린다.
상자 내부에 갇혀 모습 드러내지 않는 봉주의 소.
뿔로 상자를 들이받는 듯 쿵! 쿵! 전혀 그 크기를 가능할 수 없다.
직원들의 지시로 무진동 트레일러에 실리는 나무 상자.
바라보는 봉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

씬 73 시골길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길.
소 태운 성찬의 트럭이 시골길을 달리고 있다.
길가에 핀 꽃을 무심히 바라보는 진수.

선두 차량의 덕기와 호성도 아무 말이 없다.

씬 74 고속도로

달리는 봉주의 무진동 트레일러.
마치 문화재를 옮기듯 앞, 뒤로 호위차량들 따른다.
트레일러 내부 어둠.. 발에 묶인 쇠사슬과 씩씩 거친 숨소리.
차들이 굉음 내며 스치고 빠앙~경적 울려댈 때마다
커다란 눈에 불안감이 서린다.

씬 75 냇가

시골 고즈넉한 풍경의 냇가.
성찬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에게 물을 먹인다.
팔 걷어 부친 진수가 솔로 몸을 닦아주면 기분 좋아 음머~ 하는 소.
성찬의 얼굴을 혀로 핥는다.
족대로 피라미 잡는 호성과 덕기.
잡았다! 호들갑 떨다가 자빠지고 물 튀기고.. 마치 소풍 나온 듯 아름답고 평화롭다.

씬 76 도축장

문이 열리는 봉주의 무진동 트레일러.
커다란 나무 상자가 내려지고 직원들 일제히 달라붙어 자물쇠를 푼다.
여전히 쿵! 쿵! 거칠게 들이받는 소.
사람들, 두려운 눈으로 그 모습 바라본다.
드디어 나무상자가 해체되면 모습 드러내는 봉주의 소.
발목에 쇠고랑을 찬 어마어마한 크기의 검은 소다.
탄성을 터트리는 사람들.
성찬도 진수도 그 크기에 압도당한다.

호 성 : (입이 떡 벌어져) ...!!..

덕 기 : 칙소다! 엄청난 놈이야!

봉주가 수신호 보내자 직원들이 도축장으로 소를 잡아끈다.
음머~ 거칠게 반항하는 봉주의 소.
결국 양쪽에서 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들이민다.
음머~ 음머~ 동요하기 시작하는 다른 소들.

직 원 : 다음 참가자! 준비하세요.

이제 성찬의 소가 들어 갈 차례다.

아무 말없이 소를 꼬옥 끌어안은 성찬.
소도 성찬 얼굴에 콧등을 부빈다.

성 찬 : (눈물 고여) 잘... 할 수 있지?

거칠게 소를 잡아당기는 직원들.
녀석, 순순히 걸음을 떼며 성찬과 멀어진다.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녀석의 뒷모습.
착잡한 성찬.
숨죽여 지켜보는 덕기와 호성.
진수는 눈물을 훔치고 녀석의 마지막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든다.
덜컹! 도축장 문이 열리자 우뚝 걸음 멈추는 녀석.
천천히 고개 돌려 성찬 쪽 바라본다.
가슴이 무너지는 성찬.
감정 폭발처 눈물 쏟아낸다.
흐느끼며 줄 당기는 진수.
렌즈에 담긴 녀석도 눈이 젖어있다.
직원들이 줄을 당기자 비로소 발걸음 떼는 녀석.
도축장 안쪽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쿵! 닫히는 도축장 문.
...

씬 77 계류장

녀석의 엉덩이에 찍히는 도축합격 도장.
타격봉에 화약을 장전하는 타격수의 손.
1인용 도축 철제박스에 갈혀 도축지점으로 이동하는 녀석.
커다란 눈만 깜빡 깜빡..유도로를 따라 드디어 도축지점에 도착한다.
타격봉을 조준하는 타격수.
바라보는 녀석. 선한 눈빛.
차가운 총구 속 어둠.
당겨지는 방아쇠.

씬 78 축훈비 앞

탕!
감았던 눈 움찔하는 성찬.
후두둑! 비둘기 때 날아가고
성찬, 슬픈 눈으로 축훈비에 술을 뿌린다.

썬 79 정형공장 복도

정형복을 걸치고..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쓰는 성찬.
문을 열면 차가운 형광등 아래 길게 뻗은 복도.
걸어가는 성찬의 발소리만이 빈 복도를 울린다.
길고 지루한 길.. 도축된 녀석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모퉁이를 돌자 시야에 보이는 정형장 문.
죄책감에 걸음 느려지지만.. 다부진 각오로 다시 걸음 땀다.

썬 80 정형장 내부

창고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성찬.
심사위원들과 판정가들을 지나 드디어 녀석과 재회한다.
...
2분도체(註-도축된 고기를 중앙을 따라 이분할하여 얻어진 형태) 되어 공중에
걸려있는 녀석의 몸.
성찬, 차마 볼 수 없지만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떠오르는 자막 - 결선 定型(정형)

봉 주 : (슬쩍 다가와) 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몸에 칼을 댈 수 있어.
성 찬 : ..
봉 주 : (턱으로 자신의 2분도체 가리키며) 이게 바로 내 사랑의 결정체야.

공중에 매달린채 미끄러지듯 밀려오는 봉주의 2분도체.
성찬의 2분도체 옆에 나란히 멈춰선다.
허연 입김 뿜는 국장.

국 장 : 정형의 채점기준은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골발해 내느냐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과한 단 두 명만이 최종 결선 티켓을 얻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긴장) 시작합니다.

타이머 누르는 판정가.
정해진 시간이 마이너스 카운트 된다.
펼쳐지는 정형 대결.
각자의 도체 앞에서 긴박하게 칼질하는 참가자들.
성찬, 손에 칼을 쥐 채 꿈쩍 않고 서 있다.
그 모습 위로 선행되는 만식의 호통.

썸 81 운암정 지하 정형실 (과거)

만 식 : 뭐하느냐 이놈! 어서 칼을 대!!

어린성찬 : (2분도체 앞에서 엉엉 울며) ..우리한테 사랑받고 자란 소꿉아요.

만 식 : 네 앞에 있는 건 고깃덩어리야!

재료에 감정을 넣어서는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없어!!

어린성찬 : 서로 좋아했는데 어떻게 칼을 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 식 : 이 노움~! 그런 못된 버릇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니 할애비가 가르치더냐!!

썸 82 정형장 내부 (현재)

칼을 고쳐 쥐는 성찬.

성 찬 : (나직히) 약속할게. 니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

푹! 도체에 칼을 꽂는 성찬.

안도의 숨을 내쉬는 국장과 진수.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성찬의 칼놀림이 시작된다.

힐끗 바라보는 봉주. 속도에 열을 올린다.

툭툭! 박스로 떨어지는 각각의 부위들.

거침없는 성찬의 칼놀림.

끼룩- 끼룩- 끼드득- 뼈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등심을 내리고 칼을 가는 봉주.

초조하게 시간 보는 덕기.

성찬이 벌써 채끝부위 분할을 지나 우둔 분할 골발을 마치고 있다.

무서운 성찬의 속도에 위기감 느끼는 봉주, 얼굴은 땀으로 뒤범벅.

성찬의 등에서 허연 김이 올라온다.

허벅지 뼈 분리되고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골발 작업.

성찬, 빠른 속도로 봉주를 따라 잡는다.

이를 악무는 봉주.

긴장된 얼굴로 촬영하는 진수.

시간은 점점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성찬과 봉주의 칼놀림은 정점에 달한다.

..3초.2초.1초.제로!

탁!

거의 동시에 칼을 내려놓는 성찬과 봉주.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끝냈다.

- - -

채점을 끝낸 판정가들.

판정 1 :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오봉주, 정형 100점. 종합점수 670점. 1위.

참가번호 93번 성찬, 정형 100점. 종합점수 580점. 2위.

이상 두 분이 최종결선에 올랐습니다.

번쩍 팔을 들어 올리는 봉주.
우와아~ 관중들의 박수소리.

국 장 : 그럼 도축 경매장으로 자리를 옮겨 최종결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 찬 : (침울한) ...

씬 83 도축장 경매장

장내를 가득 메운 관중들
대형 스크린에는 봉주와 성찬의 종합점수가 보여 진다.
'봉주 670점' '성찬 580점'
기운 빠진 호성과 덕기.

안 내 : (스피커음) 결선 참가자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세요.
호 성 : 니미, 끝장났는데 오라가라야?
만점을 받아도 소용없어. 막말로 봉주 재가 빵점 맞겠어?
그럼 희망은 있겠지만 그건 기대해봐야 말짱 허당이고,
짐 싸. 고속도로 막히기 전에 들어가자.
덕 기 : (짜증) 아, 씨발, 사람이 왜 그렇게 비관적이야?
호 성 : 현실이 그럴잖어, 시방.
성 찬 : ..그동안 수고들 했어. 끝나고 술 한잔 하자.

- - -
레일에 매달려 오는 나머지 2분도체.
성찬과 봉주 앞에 멈춰 선다.
옆으로 도열한 등급판정사들.

국 장 : 드디어 대령숙수의 후계자를 정하는 마지막 대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판정은 재료의 육량과 등급으로 치러지며, 재료의 조직감, 성숙도.
근육 내 지방도, 육색, 지방색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 외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판정해 각각 점수로 환산처리 되겠습니다. 판정사님들, 시작해주시죠.
봉주와 성찬의 2분도체로 모여드는 판정사들
능숙하고 빠른 솜씨로 등급 체크한다.

판정 1 : (성찬 소 판정) 육량등급! 74.6 A등급!
판정 2 : (봉주 소 판정) 육량등급! 79.3 A등급!
판정 3 : (성찬 소 판정) 보수성, 탄력성 합격!
판정 4 : (봉주 소 판정) 보수성, 탄력성 합격!
판정 1 : (성찬 소 판정) 육색검사! NO 4 최상급!
판정 2 : (봉주 소 판정) 육색검사! NO 4 최상급!
판정 3 : (성찬 소 판정) 지방색 검사! NO.3 최상급!

판정 4 : (봉주 소 판정) 지방색 검사! NO.3 최상급!

분주한 우중거.
운암정 직원들과 함께 플래카드 설치하고 있다.
'철탐산업훈장에 빛나는 오봉주 장맛, 대령숙수도 울고 갈 애국의 맛'
'간장된장고추장은 오봉주 장맛. 주식회사 운암식품'
우승을 확신하는 봉주. 백화점 점장에게 속삭인다.

봉 주 : 매장 확대건 아직도 보류중이신가? 대충 승부는 난거 같은데 본사에 연락하시죠.

정 장 : (핸드폰 꺼내 버튼 누른다)

국 장 : 그럼 마지막으로 근육 내 지방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판정 1 : (성찬 소 판정) 근육 내 지방도 NO.6 1등급 플러스!!

핑!
실수로 축하 바구니 터트린 우중거.
꽃가루가 쏟아지며 펼쳐지는 플래카드.
"축 우승! 오봉주 장맛, 대령숙수의 적통되다"
당황한 우중거, 민망해서 허둥지둥.

판정 2 : (봉주 소 판정) 근육 내 지방도! NO.7 1등급 플러스!!

와~ 관객들의 환호성.
고개 떨구는 성찬.
대형 스크린에는 '오봉주 770점 성찬 680점. 오봉주 승리' 가 뜬다.
이때 봉주의 2분 도체를 유심히 보던 등급 판정4.
심각한 표정으로 국장과 판정사들을 불러 모은다.
서로 이야기 주고 받으며 심각해지는 그들.

봉 주 : (의아한) ...?

판정사4, 봉주의 2분도체에 혈흔 도장을 찍는다.
놀라 돌아보는 성찬.
찬물을 끼얹은 실내.

봉 주 : (달려가)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국 장 : (서둘러 마이크 잡고) 정정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의 도체에서 혈흔이 발견된
관계로 등급 외 결함으로 판정됐습니다.

대형 전광판.
봉주의 점수가 깜빡거리다가 수정된다.
성찬과 동점이다!
와! 만세 부르며 깨어난 덕기와 호성. 믿을 수 없는 성찬.
관중들 술렁대고 판정관 4의 먹살을 잡아 트는 봉주.

봉 주 : (흥분한) 뭐야 이거! 도대체 어디가 결함이 있다는 거야?

판정 4 : 눈이 있으면 직접 보세요. 저게 혈흔이 아니면 됩니까?

봉주, 거의 정신이 나가 자신의 도체 앞으로 뛰어간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봉주.
놀랍게도 혈흔이 묻쳐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확실한 혈흔이다.

봉 주 : 이 이럴 리가...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넋 나간 표정인데)

판정 4 : 오봉주 참가자는 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어요.

봉 주 : 닥쳐! 무진동 트레일러가 뭔지나 알어?

판정 4 : 소는 예민한 동물입니다. 운송 중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출혈이 생겨요.

봉 주 : ...!!

빠르게 스치는 플래쉬 컷.
어두운 나무 상자 속, 쇠사슬에 발목 묶여 씩씩대는 봉주 소.
아름다운 시골 냇가에서 물 마시는 성찬의 소.
쿵! 쿵! 상자를 머리로 들이받는 봉주 소.
성찬의 얼굴을 핏는 성찬의 소.
경적 울리며 스치는 차들. 굉음 내며 달리는 대형트럭의 소음..
봉주의 소, 두려움에 질린 눈.

플색 주저앉는 봉주.
국장의 안내 방송.

국 장 :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점자가 나온 관계로 불가피하게 마지막 결승을 위해 시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잡히는 대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와 눈 마주치는 백화점 점장.
고개 가로 저으며 핸드폰 꺼내든다.

봉 주 : ...!!..

씬 84 운암정 장독대

살금살금 다가가 성찬의 장독 뚜껑을 여는 수련생2.
성찬의 필체 '1992년 겨울. 최고가 되자'
맛보는 수련생2. 과연 최고라는 표정으로 수련생1에게 맛보라 권한다.
이때 웅동이 들고 온 봉주. 까칠한 수염에 쨍한 눈.
다짜고짜 성찬의 항아리를 박살낸다.
그리고 겁에 질린 수련생들을 웅동으로 두들겨 팬다.
싹싹 빌며 바닥 기는 수련생들.
인정사정 없는 봉주.
그 모습 주방 창살 통해 훑쳐보는 시선..

서노인이다.

썩 85 대령숙수의 묘

오랫동안 인적 끊긴 산길.
잡풀로 뒤엉킨 길을 데라우치와 국장. 진수와 기자들이 오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다다른곳.. 잡초에 뒤덮인 대령숙수의 묘다.
- - -
묘 앞에 진설된 제물들. 그리고 대령숙수의 칼.
데라우치와 일행들 모두 절을 올린다.
카메라에 담는 진수.

데라우치 : 대령숙수의 맥이 끊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묘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 장 : 부끄럽지만, 그만큼 일제의 상처가 큰 탓도 있겠죠. 일본을 거역한 대령숙수의 묘를 마음대로 찾아 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데라우치 : (정중히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기자 1 : 혹시, 대령숙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데라우치 : 선친께 들은 바론, 마지막 대령숙수에겐 두 명의 수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령숙수를 독살했다고 하더군요.

진 수 : (놀라는) ..!

데라우치 : 어쩌면 그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대령숙수의 후계자를 가리는 일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일 동 : !!! (놀란 표정에서)

썩 86 국립도서관

도서관으로 달려 들어온 진수.
컴퓨터로 도서목록 검색한다.
- - -
백백이 꽃힌 고서들.
난감한 진수.
- - -
사서 열람실.
사서가 진수에게 책을 건넨다.
인사하고 받아 펼치는 진수.
오래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듯 일본어가 적힌 요리 서적.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사진 한 장.
조선시대 대령숙수를 찍은 흑백사진이다.
그리고 숙수 양 옆에 나란히 선 두 명의 제자.

진 수 : ...!

플레쉬 컷!
성찬 집 마루에 걸린 성현의 젊은 시절 사진.

씬 87 운암정

헉헉대며 들어서는 진수.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다 서노인을 발견한다.

진 수 : 할아버지!

돌아보는 서노인.
진수가 다가오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달아난다.

진 수 : (따라가며) 잠깐만요! 뭐 좀 여쭙볼게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건물 모퉁이 지나 사라지는 서노인.
집요하게 따라가는 진수.
미로와 같은 길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다시 모퉁이 돌면 앞이 막혀 버린 공간.
서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조그만 광이 보인다.

진 수 : ...!

광문을 열고 들어간다.
텅 빈 내부.
허탈해서 돌아 나오는데 발 밑 커다란 나무 발판.
발 굴러보면 텅텅! 울리는 소리.
진수, 나무 발판을 들어 올리자 지하 창고가 시야에 드러난다.

진 수 : ..!!

씬 88 지하 저장고

계단 밟고 내려서는 진수.
일렬로 길게 늘어선 김칫독들과 산처럼 쌓인 쌀가마니들.
은밀한 지하 요새 같다.
다소 겁먹은 표정. 한걸음 한걸음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 저장고 끝에서 쪽문 발견.
조심스레 열고 들어간다.
굴뚝 같이 높은 천정에서 떨어지는 햇빛.
이제는 쓰지 않는 운암정의 폐가구들과 식기들.. 현판들.. 맷돌.. 함지박..
그리고 뒤주 위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사진 액자들..
가서 들춰보면 도서관에서 봤던 대령숙수와 두 제자의 사진이다.

서노인 : (off) 뭘 알고 싶은 거요?

놀라 돌아보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서노인.

진 수 : 대령숙수를 죽인 건 누구죠?

서노인 : ...

진 수 : 운암정에 오래 계셨다면서요? 어느 제자가 대령숙수를 죽였나요?

서노인 : ...스승을 죽인 건.. 성현이야.

진 수 : ..!

서노인 : 성찬의 할아버지.

진 수 : (믿을 수 없는) 네? ..왜 스승을 죽였나요?

서노인 : (순간 허열게 질린 서노인) ..!..

검침 꼬챙이로 쌀가마니를 찌르는 누군가의 손.

짜르르~ 뚫린 구멍을 통해 쌀이 쏟아진다.

돌아보는 진수.

봉주가 쾅한 눈으로 걸어온다.

한걸음 한걸음 옮기며 줄줄이 늘어선 쌀가마니에 구멍을 내는 봉주.

짜르르~ 짜르르~

불길한 소리가 실내를 감싸고.. 서노인의 목에 불쑥 꼬챙이 들이대는 봉주.

날카로운 꼬챙이 끝이 서노인의 목을 위협한다.

봉 주 : (나직히) 다시 말해봐. 누가 대령숙수를 죽였다고?

서노인 : (부르르) ..!..

봉 주 : 다시 말해봐, (버럭) 어서!!

서노인 : 서..성현이... 성찬이 할아버지가 죽였어...

입가에 미소 번지는 봉주.

고개 돌려 진수를 바라본다.

진 수 : ...!!

씬 89 파출소 안

또다시 소동 벌이는 성현.

말리느라 진땀 빼는 성찬과 경찰들.

성 현 : 내가 죽였어, 이 놈들아.

제발 잡아가. 제발 나 좀 잡아가~

경찰 1 : (머리잡혀) 어우, 미치겠네. 할아버지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세요~

나 대머리되면 책임 질거예요?

성 찬 : (안절부절) 할아버지, 이 손 놔. 할아버지!!

안쓰럽게 보고 있는 소장.

씬 90 방송국 공개홀

수 많은 관중들과 취재 기자들.
VIP석엔 데라우치 모습도 보인다.
각자의 조리대 앞에 서 있는 성찬과 봉주.
떠오르는 자막 - 최종 결선 秘傳之湯(비전지탕)

국 장 : (마이크) 대령숙수의 후계자를 가리는 마지막 과제는 말 그대로 비전의 탕요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장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구한말의 자료 화면 뜬다.

성 우 : 국권을 빼앗긴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께서는 나라를 잃고 어찌 음식을 취하겠냐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총독부에서는 온갖 산해진미로 회유했지만 끝내 순종 임금은 모든 음식을 거부한 채, 결국엔 입맛을 잃어 아무 것도 드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순종께서 아끼던 대령숙수가 정성을 다해 끓인 소고기탕을 임금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탕은 빈 그릇으로 나오게 됩니다. 상궁들의 말에 의하면 순종임금은 그 탕을 먹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순종임금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소고기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탕이었기에 임금은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대령숙수의 적자에게만 물려지던 비전의 소고기탕이라는 것만 짐작할 뿐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결과제로 소고기탕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대령숙수의 후계자라면 그 소고기탕을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 있을 거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장내 밝아지고 숙연한 분위기.
성찬과 눈 마주치자 시선 피하는 진수.

국 장 : 두 참가자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
이때 느닷없는 봉주의 음성.

봉 주 : (off) 전 이 시합을 포기 하겠습니다!

순간 봉주에게 쏠리는 시선들.
고개 숙인 봉주, 울고 있는 듯 어깨가 흔들린다.

성 찬 : ...!

진 수 : ...!!..

대형 스크린 속 봉주.
천천히 고개 들면 눈물 범벅.

봉 주 : (울먹)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령숙수께 옥을 보일 바에는..
차라리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국 장 : 오사장 왜 그래?

우루루 몰려드는 카메라. 터지는 플래쉬.

봉 주 : (눈물 흘리며) 대령숙수는 제자의 손에 독살 당하셨습니다. 그 어르신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한 명이 운암정을 몰려받은 제 할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성찬 가리키며) 이 자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 대령숙수를 독살한 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카메라 보며 또 다시 눈물 쏟는) 그렇게도 믿었던 당신의 제자! 바로! (성찬 가리키며) 이자의 할아버지 성현입니다.

파파팟! 성찬 향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쉬.
웅성웅성.. 혼란스런 관중들.
흥분한 덕기, 봉주 향해 달려가지만 우뚝 가로막고 선 우중거.

덕 기 : 오봉주 연기 하지 마. 너 지금 자신 없잖아.
실력으로 안 되니까 뺑카치는 거잖아.

봉 주 : (진수에게 던지시) 뭐해? 김PD. 계속 입 다물고 있을거야?

핵 진수 쪽 돌아보는 덕기.
호성이가 성큼 다가선다.

호 성 : 진수씨 뭐 아는 거 있어?

진 수 : ..(굳은 표정)

호 성 : 저 친구 헛소리가 맞는 얘기냐구!

성찬쪽 바라보는 진수. 차갑게 굳은 성찬.

진 수 : (침통한) ..맞아요. 오봉주 사장 말이.. 다 맞아요.

믿을 수 없는 덕기. 호성.
국장이 성찬 앞에 선다.

국 장 : 어떻게 된 거야.

성 찬 : ..사실이에요.

국 장 : 알고 있었어?

성 찬 : ..

국 장 : 알고도 참가 한 거야?

성 찬 : ..죄송합니다.

당혹스런 국장. 웅성이는 사람들.

봉 주 :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이 시합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버리는 봉주.
넋나간 덕기의 어깨를 툅! 부딪치며 간다.
따라붙는 기자들.

기 자 : 그럼 시합을 포기하는 겁니까?

봉 주 : 포기가 아니라 거부하는 겁니다.

기 자 : (일본인) 소레데와 대령속수노 켄와 도오 데스까? 소레모 아키라네 마스크?

못 알아듣는 봉주.
힐끗 보곤 대꾸없이 가버린다

썸 91 논길

해질 무렵..
논길을 하염없이 걷는 성찬의 뒷모습.
손에는 박카스 한통이 들려있다.

썸 92 성찬의 집

집으로 들어서는 성찬.
텅빈 마당.

성 찬 :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엌에 들어가 보는 성찬.
안방 문 여는 성찬.
할아버지 모습은 온데 간데 없다.
돌아서던 성찬, 할아버지 신발 발견.

- - -

다락문 열어 제키는 성찬.
성현이 두려움에 떨며 싹싹 밟고 있다

성 현 : (눈물 고여)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울컥 솟구치는 성찬. 성현을 꼬옥 안아준다.

성 찬 : 괜찮아 할아버지 잘못된 거 없어.
어쩔 수 없었잖아. 울지 마.. 무서워 할 거 없어 할아버지.

안겨서도 벌벌 떠는 성현.

안타까운 성찬.

- - -

마주앉아 밥 먹는 성찬과 성현.

평화롭고 다정한 모습.

성찬, 잘 구운 삼겹살을 성현의 밥 위에 올려준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치워버리는 성현.

성 찬 : (다시 고기 올려주며) 먹어. 삼겹살 먹고 싶었잖아.

성 현 : 이거 말고 삼겹살 먹고 싶어.

성 찬 : 그게 무슨 말이야?

성 현 : 사줘 이놈아.

성 찬 :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먹으면 사다줄게.

늘 똑같은 일상의 풍경.

아프고 고단하지만 정겨운 모습..

썩 93 방송국

밤. 진수 책상에만 켜진 스텐드.

진수가 홀로 앉아 괴로워한다.

멀리 퇴근하던 국장, 안타깝게 바라본다.

썩 94 운암정

각종 재료 넣어놓고 탕을 만드는 봉주.

각양 각색의 소고기탕이 만들어지고, 맛보고, 뒤집어 얹고..

뭔가 석연찮은 표정.

- - -

만식의 방.

커다란 초상화와 그가 남긴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장롱을 여는 봉주, 만식이 입던 속수 옷을 꺼내 입는다.

거울에 자신을 비쳐보던 봉주,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꺼내 펼쳐보면 낡고 오래된 쪽지 한 장.

각종 요리 재료와 조리법이 세필붓으로 씌어져 있다.

찬찬히 읽던 봉주.. 눈이 휘둥그레진다.

썩 95 덕기의 정육 식당

홀로 술 마시는 성찬.

TV에서 CM송 '간장 된장 고추장은 오봉주 장맛!!' 이 흘러나오자

고기 썰다가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는 덕기.

아뿔싸! 토크 프로에 봉주가 출연했다.
얼굴 찡그리며 리모컨 누르는 덕기.
그러나 밧데리가 없는지 채널은 그대로다. 리모콘 내팽개치는 덕기.

사회자 : 8월 15일 광복절 날 시합이 재개된다고 들었는데요?
봉 주 :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은 시합이기 보다는 비전지탕을 재현해내고 칼을 수여받는 매우 뜻 깊은
문화 행사가 될 겁니다.
사회자 : 성찬씨가 다시 도전해 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받아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봉 주 : 글썄요. 그건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싶군요.

덕기, 성찬의 빈 잔에 술을 따라준다.
마시는 성찬.
이때 고기 사러온 할머니와 실랑이 벌이는 덕기 아내.

덕기처 : 삼겹살 드렸잖아요, 할머니.
할머니 : 누가 돼지고기 달래? 소고기 달라구,
덕기처 : 삼겹살이라면서요.
할머니 : 그래 삼겹살, 양지 삼겹살 달라구.

무심히 보는 성찬.

씬 96 성찬집 / 안방

고기 사갖고 들어서는 성찬.

성 찬 : 할아버지 삼겹살 사왔어! 양지 삼겹살 사왔다구!

안방 문을 열면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성현의 뒷모습.
생전 처음 보는 웃을 입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성 현 :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해..
(점점 소리 커지며) 막아야 해.. 연회를 막아야 해!
(더 큰 소리로) 어서 막어! (버럭) 막지 않고 뭐하고 있어!!

눈이 뒤집힌 성현.
온 몸 부르르 떨며 뒤 돌아 선다.
손에 쥐어진 주방용 칼.

성 찬 : (두려운) 하.. 할아버지..

성현의 컷가를 간지럽히는 일본 전통 악기.

웃고 떠드는 일본말들.. 연회 즐기는 웃음 소리.
성현, 칼 든 손 부르르 떨며 귀를 틀어막는다.

성 현 : 제발.. 제발 저 소리 좀 멈춰 줘.. 듣기 싫어..듣기 싫어..

말없이 다가가 칼을 뺀 성찬.
아프게 할아버지를 감싸 안는다
성현의 주름진 뺨에 흐르는 눈물.
글썽 고이는 성찬.

성 현 : (힘없는) 성찬아.. 연회를 막아라..

성 찬 : ...!

성 현 : (들릴 듯 말듯) 막아야 된다.. 꼭 막아야 돼..

씬 97 경회루 (과거)

연회가 열리는 경회루.
게이샤들이 분위기를 띄우고
일본 고위 관리들은 웃고 마시고 춤을 춘다.
상을 가득 채운 일식풍의 요리들.
분주하게 음식 가져다 놓는 숙수복 차림의 요리사.. 젊은 만식이다.
- - -
양 옆으로 길게 늘어앉은 일본인 관리들.
상석에는 데라우치 차관 (데라우치의 부친)이 앉았다.
그 맞은편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린 젊은 만식.

만 식 : 한식에 일식을 가미하는 거야 말로 내선일체의 음식이 아닐까 하옵니다.

일려주신 비법은 (씬94 조리법 쓰여 진 종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차 관 :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귀중한 음식이다.

잘 보존해서 자네 후세에게도 물려주길 바라네.

만 식 : 명심하겠습니다.

차 관 : 들리는 얘기로는 순종이 먹고 눈물을 흘렸던 소고기탕이 있다던데..

다음 연회 땀 그 맛 좀 보여줄 수 없겠느냐?

만 식 : ..!

관 리 : 그 소고기탕은 저자의 스승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요리사죠.

차 관 : 자네 스승이 누구지?

대답없는 만식. 조용히 입술 깨문다.

씬 98 운암정 (과거)

술에 취한 대령숙수.

데라우치 차관과 만나고 있다.

대령숙수 : (상복차림) 모시던 임금이 승하하셨는데 음식은 만들어 뭐합니까?
그냥 술이나 먹다 죽을랍니다. (술병 채 들이킨다)

차 관 : 중요한 연회라고 하지 않았소.

황! 술병이 박살나도록 내려놓는 대령숙수.
깨진 사기 파편이 사방에 흩어진다.

대령숙수 : 성현아! 손님 가신단다. 탕이나 한 그릇 대접하고 보내드려라.

휘청휘청 가버리는 대령숙수.
분노 억누르는 데라우치 차관.
잠시 후 탕을 들고 온 젊은 성현, 데라우치 차관 앞에 내려놓는다.
질박한 독배기에 담겨 온 소고기탕.
한 수저 떠서 입에 넣는다. ..조용히 터져 나오는 탄성.

차 관 :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맛이로다.
(성현에게) 이 탕의 이름이 무엇이나.

성 현 : ...

- - -

다음날 운암정으로 들이닥친 관군들.

성 현 : (다급한)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연회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잡아가겠다고
그 자가 관군들을 보냈습니다.

술병 채 들고 마시던 대령숙수.
휘청 휘청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집어 든다.
와~ 흩어져 대령숙수를 찾는 관군들.
대령숙수, 도마 위에 자신의 팔목을 놓고 칼을 번쩍 들어 올린다.
그리고 힘껏 내리친다.
순간 달려들어 말리는 성현. 대령숙수의 칼이 멧돌위에 찍혀 이가 나간다.

성 현 : 스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령숙수 : 비켜라! 수라 올릴 곳이 없어졌는데 손은 있어 무엇 하겠느냐!

성현을 뿌리치는 대령숙수.
거침없이 자신의 팔목을 내려친다.
순간 사방으로 튀는 피.
스승의 다리 붙잡고 울부짖는 젊은 성현.

성 현 : 스승님.. 스승님..

그 모습 목격한 데라우치 차관.
몰려드는 관군들을 손으로 저지한다.

차 관 : ...!!

씬 99 성찬의 집 (현재)

커다란 고무욕조에 몸을 담근 성현.
창 살 넘어 별을 보고 있다.

성 현 : 찬아...

성 찬 : 응?

성 현 : 손님들이 오시거든 정성으로 대접해야한다.

성 찬 : (비누칠) 무슨 소리야?

성 현 : 찬물을 틀어야 돼.

성 찬 : 아직은 안 돼. 감기 걸려.

성 현 : 찬물에 담가야 해.. 그래야 몸동아리에 있는 피가 다 나가..
피가 다 나가야 갈 수 있어...

성 찬 : ..약한 소리 하지 마, 할아버진 안 죽어. 내가 안 보낼 거구.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지?

성 현 : ...

씬 100 성찬의 방

늦은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강한 햇살에 늦잠 깨는 성찬.
주변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부엌에선 음식 만드는 소리.
성찬, 부엌과 연결된 쪽문을 열어본다.

성 찬 : 뭐해?

불 위에서 열심히 끓고 있는 고깃국. 칼질하는 성현.

성 찬 : (미소) 고깃국이야? 그래, 오랜만에 호강 좀 하자.

쪽 문 닫는 성찬.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속수 옷을 바라본다.
낡고 헐었지만 견고한 세월이 느껴진다.

성 찬 : 할아버지, 이 옷, 스승님한테 물려 받은거야?

하며 쪽문 여는데 찬장에 머리 기댄 성현.
칼 든 손 그대로.. 꼼짝도 않고 굳어있다.

성 찬 : ...!!

씬 101 장례식장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성현의 영정사진.
바닥에 기대앉아 멍하니 보고 있는 성찬.

호성처 : 그케도 손님들 올킨데.. 음식 준비해야 안되겠나?

호 성 : 성찬아, 힘들면 그냥 여기서 맞출까?

성 찬 : 내가 해야지. (일어서며) 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내 손으로 하고 싶어.

덕 기 : 뭐 준비할 거 있으면 시켜요. 시장은 내가 다녀올게.

성 찬 : 우선 양지머리 삼겹살 먼저 떼고...

고사리...고사리는 제주도 고사리로 사고..

고추기름은 직접 만들 거니까 고기 살 때 쇠기름도 얻어오고..

그리고 준치 뽕은...

말을 멈추는 성찬.

...

갑자기 핑! 도는 눈물.

천천히 고개 돌려 할아버지 영정을 바라본다.

..다가가 말없이 흐느끼는 성찬.

성 찬 : ..할아버지.. 이거 말해주려고 그런 거야?

이거 가르쳐 줄려고 그런 거 맞지? 그치? (흐느낀다)

조용히 타오르는 향불.

씬 102 운암정 안채 (과거)

켁한 눈. 깊게 패인 볼.

시체같은 대령숙수가 자리에 누워 거친 숨 토해낸다.

멀리선 연회가 열리는지 귀를 간지럽히는 일본 악기 소리..

맥을 짚는 의원의 표정이 어둡다.

- - -

젊은 성현, 방문을 나오는 의원과 만난다.

의 원 : 워낙 상처가 깊으신 데다 술까지 드셔놔서 영증이 오장육부에 맺히셨네.

약도 드시기 힘들시겠지만 행어나 술을 찾으셔도 절대 드려선 안돼.

술기운이 심장에 이르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태야. 유념하게.

성 현 : (고개 떨군다) ..

- - -

약사발을 들고 방문을 넘는 젊은 성현.

손가락에 약을 떠서 대령숙수 입에 흘려 넣지만 먹을 의지가 없는듯
입 옆으로 약이 흘러내린다.

성 현 : 스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을 써야 일어나시죠.
대령숙수 : ..술.. 술을 다오..

안타까운 성현, 스승의 나무 껍질 같은 손을 잡는다.
스승의 뺨한 눈에 고이는 눈물. 성현의 눈가에도 눈물 맺혀 흐른다.

대령숙수 : 제발... 제발 술 좀 다오 성현아..
성 현 : 스승님.. 안됩니다 스승님.. (엎드려 통곡한다)

성현의 머리를 쓰다듬는 대령숙수.
연회의 음악소리, 웃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대령숙수 : ..더 이상 저 소릴 듣고 싶지 않아..
성 현 : 스승님..
대령숙수 :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제 쉬고 싶구나..

성현, 눈물 훔치고 일어나 대령숙수를 벽에 기대 앉힌다.
독한 마음먹고 술을 가져오는 성현,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른다.
울컥 솟구치는 설움..그러나 마음 독하게 먹고 대령숙수의 마른 입술에 갖다 댄다.
꿀꺽 꿀꺽... 힘겹게 술을 마시는 대령숙수. 금 새 눈가에 생기가 돈다.
안타까운 성현.

대령숙수 : (성현 손 꼭 쥐어주며) 이젠..상감마마의 연회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고맙다 성현아..

평화로운 대령숙수의 얼굴.
어느 순간 술기운이 심장에 이른 듯 헉!헉! 심상치 않은 호흡.
스르르 고개 떨군다.

...
하염 없는 눈물로 통곡하는 성현.

성 현 : 스승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동 밖,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데라우치 차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안채를 향해 머리 조아린다.

씬 103 대령숙수의 묘 앞

서노인과 나란히 앉은 진수.
심각한 표정.

서노인 :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스승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성현 어른은 운암정을 떠날 수 밖에 없었지.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만식어른이 주인 없는 운암정을 차지하게 된 게야. 하지만 진정한 대령숙수의 후계자는 성현 어른이었어.

진 수 :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찬씨도 알고 있나요?

서노인 : (조용히 고개 끄덕인다)

진 수 : ...!!

씬 104 도로

운전하는 진수.
핸드폰 버튼 눌러대지만 여전히 통화불가.
메시지 남기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온다.

진 수 : (음성 녹음) 성찬씨 나야. 지금 어딘는거야?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깐 메시지 받으면 연락 줘.

흔란스런 진수.
이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국장이다.

진 수 : 예, 국장님.

국 장 : (필터음/흥분된) 성찬이가 시험장에 나타났어.

진 수 : 예?

국 장 : (필터음) 지금 어디야? 최대한 빨리 들어와.

끼이익! 급하게 유턴을 하는 진수의 차.
길 막히자, 중앙선 넘어 과감하게 달린다.
광복절, 길가에 내걸린 태극기들.
여전히 웃고 있는 대형 광고판 속 봉주.

씬 105 방송국 공개홀

커다란 태극기가 내걸린 공개홀.
온갖 야유를 받으며 성찬이 나타난다.
봉주는 만식의 옷을 입었고 성찬은 대령숙수의 옷(성현이 입었던)을 입었다.
성찬 향해 걸어가는 봉주, 중간에 선 국장의 마이크를 뺏어든다.

봉 주 : (관중 향해 쇼맨십) 대령숙수의 칼은 살아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주인을 찾아가지요.

점점 가까워지는 둘.

떠오르는 자막 - 8월 15일 決戰(결전)

봉 주 : (마이크) 반드시 이겨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령속수의 한을 풀고!
애국과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찬 코 앞에 다가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와~ 관중들의 환호성.

묵묵히 서 있는 성찬.

씬 106 덕기의 정육 식당

TV속 성찬의 모습.

내실에서 팬티 차림으로 나오는 덕기.

덕 기 : (셔츠 단추 잠그며) 여보, 나 다녀 올 테니까 가게 문 열어.

아 내 : 오늘 휴일이잖아요.

덕 기 : 성찬이 형 이기면 오늘은 공짜야. 그렇게 알아뒀.

팬티 차림으로 달려 나가는 덕기.

화들짝 놀란 아내, 바지 들고 뒤쫓아간다.

아 내 : 여보! 바지, 바지!!

씬 107 호성의 집

TV보고 흥분한 호성.

아기 업은 포대기 서둘러 본다.

어느새 방문 막고 선 호성처.

호성처 : 텔레비로 봐~라.

호 성 : (울상) ..!!

씬 108 방송국 공개홀

좌우에서 동시에 밀고 들어오는 조리대.

성찬과 봉주의 요리가 시작된다.

이들을 배경으로 선 리포터.

리포터 : 방금 비전의 소고기탕을 만들어내는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순종임금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소고기탕은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도대체 어떤 요리 였길래 임금은 눈물을 보일 수 밖에 없었을까요?
전 국민의 시선이 지금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는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요리사 중, 누구의 손에서 비전의 소고기탕이 베일을 벗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태. 양지머리. 우둔살. 양. 천엽. 두부. 각종 버섯. 미나리. 흰 살 생선. 계란...
성찬과 봉주의 손 끝에서 변신하는 재료들.
커다란 솥 속에선 소고기 덩어리와 함께 물이 끓어오른다.
익숙하게 거품을 제거하는 손길.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
서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각자 요리에 열중하고 있다.
긴장해서 지켜보는 관중들.
뒤늦게 달려와 국장 옆에 서는 진수.

진 수 :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국 장 : (긴장해서 지켜보는) 쏘! 나중에 얘기해.

- - -

마침내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
완성된 각자의 소고기탕이 뚜껑에 덮혀 있다.
자신들의 탕을 들고 심사위원 앞으로 가져오는 둘.
긴장된 표정.

국 장 : 이번 심사는 대령숙수의 칼을 반환해주시고 직접 과제까지 내주신 데라우치씨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봉주씨의 소고기탕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유 있는 봉주의 표정.
뚜껑을 열어 자신의 탕을 공개한다.
대형스크린에 뜬 봉주의 소고기탕.
와~ 탄성을 지르는 관중들.
금 그릇에 담겨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소고기탕이다.

봉 주 : 이 탕은 제 조부께서 비전으로 물려주신 소고기탕입니다.
이제껏 어떤 요리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맛과 화려함을 모두 갖췄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심사위원들.
봉주의 소고기탕을 시식한다.
숨죽이고 지켜보는 관중들.
긴장의 순간이 지나고 심사위원 모두의 입가에 만족스런 미소가 깃든다.
박수 터지는 관중석.
주먹 들어 올려 승리를 확신하는 봉주.
다음은 성찬 차례.
뚜껑을 열어 자신의 요리를 공개한다.
순간, 실망스런 비웃음이 관중석에서 튀어나온다.

스크린 가득 보여 지는 성찬의 요리는 평범한 낫그릇에 담긴 육개장이다.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는 봉주.

심 사 : 이것이 대령숙수의 소고기탕 맞습니까?

성 찬 : 남들이 보면 그냥 평범한 음식이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 제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 쏟아지는 야유.
초조한 진수.

봉 주 : (성찬에게 속삭이느) 여기가 시장이야? 싸구려 음식 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심사위원들, 일제히 수저 들어 시식한다.
육개장을 떠 입안에 넣는 데라우치.
천천히 눈을 감고 음미한다.
변화 없는 표정.
달려온 덕기가 진수 옆에 다가와 선다.

덕 기 : (가쁜숨) 어떻게 됐어요?

진 수 : 방금 시식했는데, 좋다 싫다 반응이 없어요.

눈을 뜨는 데라우치.
다시 한술 떠본다.

플레쉬 컷.

대령숙수의 육개장을 입에 넣는 데라우치 차관..

육개장을 먹어보는 순종 임금..

시합장 데라우치가 눈을 감고 음미하고..

맛에 감동받은 데라우치 차관 얼굴로 휘잉~바람이 지나가고..

육개장 먹다가 목이 매여 울고 있는 순종 임금.

운암정 앞.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데라우치 차관. 눈가 맺히는 눈물.

스르르 눈을 뜨는 시합장의 데라우치.
눈가에 눈물 맺혀있다.
그 모습에 웅성이는 관중들.
봉주 얼굴에 스치는 불안한 기색.

데라우치 : 이제야 알았습니다. 순종임금께서 왜 눈물을 보이셨는지 말입니다.

통역의 말에 일순 조용해지는 장내.
진수, 데라우치를 카메라에 담는다.

데라우치 : 이 소고기탕에는 조선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평생 묵묵히 밭을 가는 소는 조선의 민초요,
고추기름엔 맵고 강한 조선인의 기세가,

어떤 병충해도 이겨내는 토란대에는 외세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고사리에는 들풀처럼 번지는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대령숙수가 임금께 올린것은 단순한 소고기탕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상심한 임금에게 대령숙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조선의 정신을
아뢰었던 겁니다. 순종임금은 대령숙수의 그 마음을 읽은 것이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속연해지는 장내 분위기.

심 사 1 : 꿈보다 해몽이구만. 평생 궁에서 최고의 음식만 먹어온 순종임금이
시장에서나 파는 싸구려 음식에 감동 받을 리 없잖소.

심 사 2 : 좋은 말씀 감사하지만.. 성찬의 요리가 대령숙수의 음식이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데라우치 : 제 선친께서는 그때 드셨던 소고기탕을 육개장이라고 했습니다.
(심사1에게) 선생님 이 탕 이름이 뭐죠?

심 사 1 : (험! 봉주쪽 눈치보며 헛기침) ..육개장 맞습니다.

웅성대는 관중들. 당황하는 봉주.

심사 3 : 그럼 오봉주씨의 소고기탕은 어떻습니까? 평가해 보시죠.

데라우치 : 이 요리도 뛰어난 맛이었지만, 절대 대령숙수의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봉 주 : (나직히) 빠가야로..

데라우치 : 이 요리가 열구자탕을 기본으로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유부와 간장을
써서 맛을 연하게 한 것은 일본인의 입맛이지, 조선인의 입맛은 아닙니다.
제가 맛을 보고 흠족했던 것도 제 나라 일본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였습니다.
한편으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던 소고기탕을 어찌나
똑같이 재현 했던지.. 마치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봉 주 : (통역에게 버럭)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통 역 : ..!!..

데라우치 : (봉주 노려보며) 그 요리법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걸 가르쳐 준 당신의
선친은 그 요리법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 요리는 한식에 일식을 가미한 내선일체의 음식이기 때문이죠.

궁지에 몰린 봉주, 부르르..

데라우치 : (성찬을 보며) 제가 볼 땐 대령숙수의 진정한 후계자는 성찬씨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싶군요.

침묵하는 심사위원들.

만장일치. 모두들 인정하는 눈치.

데라우치 : 축하합니다. 대령숙수의 칼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와~ 터지는 박수와 축하 음악.

성찬이 두 손을 번쩍 든다.

믿을 수 없는 봉주.
덕기가 달려가 성찬을 끌어안는다.
데라우치의 먹살을 잡는 봉주.

봉 주 : (이성 잃고) 쪽발이 새끼! 어디서 개소리야!!

뜯어 말리는 진행요원들. 끌려가는 봉주.

봉 주 : 당신이 봤어? 증거 있어?
어디서 쪽발이가 대령숙수를 운운해!! 빠가! 빠가야로!!..

핑! 천정에서 떨어지는 꽃가루.
민요가수들의 축하공연, 오나라~오나라~
감격스런 성찬.
국장이 어깨 두드려 준다.

썩 109 호성의 집

만세 삼창 부르는 호성.
마누라 끌어안고 뽀뽀 세례.

썩 110 덕기의 정육 식당

신나서 박수치는 덕기의 처.
종이에 큼지막하게 쓴다.
“금일 공짜”

썩 111 다시 시합장

성찬에게 수여되는 대령숙수의 칼.
성찬, 눈부신 플래쉬 받으며 번쩍 들어올린다.
박수와 환호!
성찬을 촬영하던 진수, 눈 마주치자 입 모양으로만 “축하해요” 라고 말한다.
기쁜 성찬, 입 모양으로 “고마워요” 말한다.
이때 머리 형클어진 봉주가 이성 잃고 달려온다.

봉 주 : 내 칼이다! 이 놈들아!!

성찬의 육개장에 라면 풀어먹던 우중거, 달려오는 봉주와 충돌한다.
휘청하는 우중거, 삼삼오오 모여 있던 심사위원1.2.3을 덮친다.
볼링핀처럼 나뒹구는 그들.. 우하하 웃는 사람들.

한편 성찬에게 악수 건네는 진수.
성찬이 손 내밀자 힘껏 잡아당긴다.

진 수 : (안으며) 잘했어요. 아까부터 안아주고 싶었어요.

당황한 성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만 안 놔주는 진수.
그 위로 떨어지는 꽃가루.

씬 112 성현의 묘

성현의 묘.
제상 위엔 간단한 제물과 대령숙수의 칼이 놓여져 있다.
큰 절 올리는 성찬. 호성. 덕기.
진수의 카메라가 이들의 모습을 담는다.

씬 113 방송국 편집실

절하는 성찬 모습을 마지막으로 편집을 끝낸 진수.
크게 기지개를 펴는데 지나던 국장이 엄지손가락 세워 보인다.
씨익 웃으며 가방 챙겨드는 진수.

씬 114 청국장집

북적이는 청국장집.
주인 아줌마(씬12), 손님들 상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때 고추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성찬.

성 찬 : 장모님~ 저 왔어요.
아줌마 :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돈 건네며) 밥 안먹었지?
성 찬 : (돈 센다) 가야 되요, 배달 밀렸어요.
아줌마 : (강제로 끌어다 앉히며) 밥 먹고 가. 좀 있으면 우리 딸년도 올 거야.
밤 도깨비 같은 년이 오늘은 일찍 들어온대.
성 찬 : 에이~ (일어서 가며) 나중예요.
아줌마 : (불잡으며) 글썸 앉으라니까! (하는데)

들어오던 진수와 딱 마주치는 성찬.
둘 다 놀라서 “어?”

아줌마 : 이제야 만났네 이제야 만났어~
뭐해 인사안구, 저기 내 딸 이름은 김진수고 여긴 이름이 성찬..

손 님 : (밥 먹던 손님) 허허허, 진수에 성찬이면 진수성찬이네? 허허허..
아줌마 : 김군아! 이 손님 누룽지 좀 더 퍼 드려라! (진수에게) 뭐해? 인사 안하고!
진 수 : 아.. 안녕하세요..
성 찬 : 아 예... 저 저두요...

“아줌마 여기 빨리요~”

아줌마 : (주방에 대고 소리친다) 5번에 청국장 왜 안 나와~ (하며 주방으로 뛰어 간다)

서로 마주보다 풋! 웃는 둘.
손님들 밀려가고 밀려오고 웃음 터진 진수성찬.
복적대는 손님들 속에서 환하게 웃는다.
와 몰려 들어오는 손님들.
팔 걸어 부친 성찬, 진수모의 쟁반 뺏어들고 신나게 써빙한다.
“여기 계산요!” 소리에 카운터로 달려가는 진수.
바쁘고 부산하고 정감 있는 풍경들.

썩 115 운암정

바람이 불자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들.
그중 하나가 나폴대며 운암정 상공을 날아다닌다.
짐 싸든 수련생들 하나둘 떠나가고.. 오늘도 서노인은 마당을 쓸어대고..
몇몇 직원들은 고급 식기 푸대에 담아 담을 넘는다.
가슴에 훈장 달고 운암정 간판 끌어안은 봉주,
뒷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본다.
나폴나폴 낙하하던 낙엽, 결국 마당에 내려앉자 울상 짓는 봉주.
갑자기 히죽히죽 웃기도 한다.

- - -

우편함에서 편지 꺼내는 우충거.
봉투에 호성의 이름이 찍혀 있다.
봉투 찢어 편지 펼쳐보면 첫 장에 쓰여 진 글
“라면 맛있게 먹는 법”
부르르 떨리는 우충거, 기대에 넘쳐 천천히 다음 장 넘긴다.
편지지 한가운데 쓰여 진 비법.

“배고플 때 먹도록. 꼭 배고파야함”

깨달음을 얻은 우충거.
벽찬 가슴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청명한 가을 하늘.
신나는 음악. 크레딧 타이틀 떠오른다.

-끝- 2006. 3.24